毛澤東時期 中國의 韓民族新聞言論

— 社會主義言論體制로의 그 轉換過程 —

차 배 근(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I. 序　　論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으며, 특히 일제시대에는 수많은 우리의 독립지사들과 망명객들이 건너가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은 일찍부터 우리 한글로 된 각종 신문과 잡지들도 발간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상해(上海)에서 창간한 <태동신보>(泰東新報)를 시작으로 1945년 광복 직전까지만도 중국 땅에서 모두 250여종의 우리 한글 신문과 잡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8.15광복 이후에도 역시 수십 종의 우리 한글 신문과 잡지들이 나타났다가 그 중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일부는 아직까지 발간되고 있다.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문제

이처럼 중국 땅에서도 일찍부터 우리 동포들이 수많은 신문과 잡지 등을 발간했으나, 그 중에서 상해(上海)의 <독립신문> 등 극히 일부의 신문과 잡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중국의 우리 한민족 언론에 관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8.15광복 이후의 부분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물론 그간에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

* 본 연구는 一洲文化財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함

간에 수교관계가 단절되어 자료 수집 등이 어려웠던 탓이기도 하다.

그 이유야 어떻든, 1945년 8.15광복 이후, 중국의 한민족 언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 가치 내지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동포들이 공산당 치하의 중국 땅에서도 어떠한 신문, 잡지 등의 발간을 통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 풍습, 언어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왔는가를 알아 보는데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국 땅에서의 우리 한민족 언론은 그 소속 국가의 정치체제와 언론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어떠한 존재양태를 보이게 되는가를 비교언론사적(比較言論史的) 입장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45년 8.15광복 이후 문화대혁명의 말기까지 20년간의 모택동시기에[1] 중국의 우리 한민족 언론도 소수민족 언론의 하나로서 그 소속 국가인 중국의 정치체제와 언론정책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체제의 언론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고구(考究), 그 전환과정과 존재 양태를 밝혀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선 사회주의로 전환기에서의 중국의 우리 한민족언론의 변모과정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8.15광복 이후의 중국은 크게 세 시기, 즉 (1) 사회주의로 전환기(1945. 8. 15~1957), (2) 사회주의의 건설기(1957~1966. 4), (3) 문화혁명기(1966. 5~1976.10) 및 (4) 개혁·개방기(1976. 10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시기인 '사회주의로 전환기'란 1945년 8.15광복 이후 4년간의 국공내전을 거쳐 그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1957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기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로서, 이 시기는 특히 중국의 우리 한민족언론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 한민족언론은 모두 중국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 언

1) 엄밀히 말하면, 1945년 8.15광복에서부터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의 시기는 毛澤東 時期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시기도 실제적으로는 모택동이 실권을 지배했으므로 편의상 모택동 시기에 포함시키기로 하겠음.

론체제로 전환되어 그 기관지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 시기에 우리 한민족언론이 어떻게 사회주의 언론체제로 전환, 변모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기로 하되, 신문을 중심으로 그 전환과 변모의 양태를 알아보겠는데, 이 시기에는 신문이 가장 중요한 언론매체로서 모든 언론을 대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민족 신문들 중에서도 연변(延邊)지구의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지역의 신문들에 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간단히 고찰하겠는데, 8.15광복 이후 중국에서 우리 한민족언론의 중심지는 연변으로서, 이 지역의 한민족언론만 보아도 중국 전체의 한민족언론의 변모 양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밖의 다른 지역들, 즉 관내(關內)에서는 우리 한민족 신문이 전무했으며, 만주에서도 남만과 북만에서는 각각 1-2종만 발간되었기 때문이다.[2]

이처럼 본고에서는 연변지구 신문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8.15광복 이후 사회주의로 전환기에서 중국의 우리 한민족 언론의 변모과정을 고찰해 보되, 되도록 편년사적(編年史的) 고찰을 지양하고, 중공(中共)의 정치체제와 언론정책 등의 변화와 관련시켜 그 변모 양태를 밝혀보기로 하였다. 또한 사료(史料)로는 문헌적 사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변의 우리 한족(韓族) 원로언론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체험담과 증언 등도 많이 활용하였다.[3]

---

2) 8.15광복이 되자 중국 관내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들은 약 10만명(玄圭煥, p. 663) 중에서 71,611명이 귀국(『朝鮮年鑑』, 1948年版)하여 1948년에는 2만5천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문일환, p. 89)됨으로써 관내에서는 자연히 우리 민족언론도 사라지게 되었음. 한편 만주지역에는 8.15광복 당시 약 2백16만명이 살다가 광복 후 2년간 약 80만명이 귀국(『朝鮮年鑑』, 1948年版)하고, 그후 다시 약 30만명이 귀국, 1949년에는 모두 1,100,657명이 남았으며(東北人民政府事務處, 『各種統計表』), 그리하여 우리 한글신문들도 발간되었으나, 연변을 제외한 남만과 북만에서는 각각 1-2종만 발간되었을 뿐임.

3) 원로언론인들 중, 특히 <연변일보>의 부주필(1965~1967. 2, 1978. 8. 1~1983. 12)과 주필 겸 사장(1984. 1. 12-1985. 12)을 역임한 吳泰鎬 선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도움에 감사함. 또한 연변일보사의 林長春 사장과 姜龍雲 부사장, 연변대학의 朴文一 총장(역사학자), 任範松 도서관장, 沈惠淑 교수, 연변대학출판사의 崔厚澤 사장과 총편 金東勳 교수, 그리고 길림성신문출판국의 許華懇 국장과 도서처 徐暖流 선생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림.

II. 光復後 우리 同胞들의 情況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한 것은 1949년 10월 1일이었으나, 연변지역은 1945년 8.15광복 직후부터 실제적으로는 공산당 치하에 있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에도 중국이 완전히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된 것은 1957년 중공(中共)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기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따라서 1945년 8.15광복에서부터 1956년까지를 '사회주의로 전환기'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8.15해방 직후, 연변에는 어떠한 우리 한글신문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언론체제로 점차 전환되었는가?

1. 光復直後 延邊地域 우리 同胞들의 動態

우선 이 시기의 중국의 시대적 상황과 연변의 우리 동포들의 정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연변은[4] 예전에 한국에서는 흔히 '동간도'(東間島) 또는 '북간도'라고 불렀던 곳으로서, 일찍부터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건너가 집거(集居)해 왔다. 1945년 8.15광복 당시, 이곳에 우리 동포가 얼마나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동북경제소총서』(東北經濟小叢書, 1947년) '섬유공업편'에 의하면 1944년 당시 만주에는 모두 1백65만 8천5백72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연변 거주자는 63만 1천7백33명으로서 만주 전체 인구의 38.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광복이 되자 이들 중, 많은 동포들이 귀국하였는데, 『연변전서중요문건회편』(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 제1집(1985년, p. 312)을 보면, 1947년도

4) 연변은 1934년 12월 일제의 괴뢰만주국이 지방행정제의 대개혁을 실시, 종래의 4성(吉林, 黑龍江, 奉天, 熱河)을 폐하고 만주를 10개 성(吉林, 龍江, 黑河, 三江, 濱江, 間島, 安東, 奉天, 錦州, 熱河)으로 나눌 때 길림성에서 분리, 間島省(省都는 延吉)으로 독립시켰다가 1943년 다시 목단강성, 삼강성과 함께 東滿總省으로 묶었다가 1944년 다시 간도성으로 분리했음. 따라서 8.15광복 당시 연변은 간도성에 속해 있었음.

연변의 우리 동포 수는 54만 4천1백65명(전체 인구의 73.87%)이고, 호수(戶數)는 10만 4천47호(전체의 78.4%)로 나타나 있다.[5]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던 1949년도 우리 동포 수는, 『연변인구통계회편』(延邊人口統計匯編) 1990판(pp. 120-121)에는 52만 9천2백58명(전체 인구는 835,278명)으로, 그리고 동북인민정부민족사무처편 『각종통계표』(1950년)에는 52만9천명(연변 전체 인구의 47.6%)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 숫자들이 정확하다면 8.15광복 당시, 연변에는 약 63만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가, 광복이 되자 그후 2년간 약 13명만이 귀국했으며, 그 나머지 약 52만명이 계속하여 그대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많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던 연변의 경우, 1945년 8.15광복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시기의 정세는 어떠하였는가?

2. 光復直後 복잡했던 延邊의 政治政勢

8.15광복 이후, 연변지구의 정세도 중국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였는데,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격했던 소련의 붉은군대(紅軍)가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저항을 물리치고, 연변의 중심 도시이자 일제시대의 간도성 성도(省都)였던 연길(延吉)에 진주한 것은 일본이 항복한 사흘 뒤인 8월 18일이었다.

이때 중공의 동북항일련군분견대(東北抗日聯軍分遣隊)도 소련군과 함께 연길에 진주했는데, 동북항일련군분견대란 1945년 여름 중일전쟁에서 중국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일제말에 와해되었던 동북(만주) 지방의 공산당 지방조직을[6] 재건, 당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

---

5) 縣別로는 延吉縣에 55,915호(전체의 81.14%), 296,593명(81.18%), 和龍縣에 23,623호(86.4%), 120,552명(89.72%), 汪淸縣에 13,984호(70.74%), 72,804명(70.57%), 琿春縣에 10,561호(63.87%), 54,214명(64.34%)이 살았음.

6) 중국공산당 연변지방조직으로는 1928년 2월 건립된 中共龍井村支部가 그 최초였으며, 그후 1930년 10월 中共東滿特別委員會가 건립되어 縣黨委, 區黨委, 黨支部에 이르기까지 당조직계통이 형성되었으나, 1935년 대부분 기층조직이 파괴되고 1936년 2월에는 당원들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입대하여 남만과 길동지구로 이동함으로써 그후 연변에서는 중국공산당 지방조직의 활동이 중단되었음

에서 1945년 7월 동북항일련군 내에 조직했던 11개 지구 공작위원회 중 연변지구공작위원회(延邊地區工作委員會)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요원들은 소련의 붉은군대와 합동작전을 펴며 1945년 8월 5일 소련 연해주에 있던 동북항일련군(국제 제88여단) 기지를 떠나 중소국경을 넘고 목단강을 경유, 8월 18일 소련군과 함께 연길에 도착하였다.

이들 소련군과 중공의 동북항일련군분견대는 연길에 진주하자, 곧 괴뢰 만주국의 간도성 정부 기관들을 접수하여 8월 20일 간도성(間島省)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인민무장대인 연변경비1려를 조직,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공산당 지방조직을 재건하는 동시에 무산(無産) 대중을 기반으로 한 외곽 군중단체들을 조직하여 연변지역의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한편 국민당측에서도 연변지역을 자기들 수중에 넣고자 연길에 국민당 길림성연길판사처(國民黨吉林省延吉辦事處)를 설치하는 한편, 용정(龍井)에 국민당연길현당부(國民黨延吉縣黨部)를 설립하였다. 또한 연변의 각 현에 치안유지회, 보안대, 공안대(公安隊), 민주자위군(民主自衛軍) 등을 조직하여 공산당 세력에 맞섰다.

3. 우리 同胞들도 國·共으로 兩分과 對立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 동포들도 공산당편과 국민당편으로 나뉘어 각 당을 지지하면서 서로 첨예한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예컨대, 1945년 8월 18일 소련이 연길에 진주하자, 그 이튿날 박근식(朴根植), 강동주(姜東柱) 등은 용정에서 홍군환영군중대회를 개최,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어서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동맹,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 중국공산당 외곽군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가, 이들을 통합하여 역시 공산당 외곽단체인 연변노동자·농민·청년·부녀자총동맹을 결성하였으며, 그후 이를 다시 연변인민민주대동맹으로 개편, 주로 무산대중과 빈농들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반면, 한국독립당과 한국광복군 출신 동포들은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주로 부농과 지주들을 대상으로 소련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며 장개석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인교포사무처를 설치, 우리 동포들에게 거류증을 발급하는 한편, 한국으로의 귀국을

장려,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동포사회도 두 편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결을 벌이게 되자,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 동포들은 중국공산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민당을 따를 것이냐, 또한 평양이냐 서울이냐 하는 네갈래 길에서 고민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4. 우리 同胞들의 共産黨便으로 傾倒

우리 동포들은 그러나 점차 공산당측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그 첫째 이유는, 1946년 6월 26일 시작된 중국 국민당군과 공산당군간의 전면적 내전에서 처음에는 국민당군이 우세했으나, 1947년 6월말 공산군이 국부군에 대한 총공세를 개시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갔기 때문이었는데, 1948년 9월부터 시작된 요심전역(遼瀋戰役)에서 승리한 공산군은 그해 11월말 만주 전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만주는 중국공산당이 1949년 10일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1년 전에 이미 공산당 치하로 들어갔다.

두번째 이유는, 광복 초기에 소련군과 함께 만주로 진입한 중공의 동북항일련군선견대와 조선의용군 요원들이 우리 민족의 집거지역에서 중국공산당과 그 외곽단체들 및 '인민무장대오'들을 결성,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동포들을 공산당편으로 적극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공산당에 의한 토지개혁도 우리 동포들이 중공측으로 기울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는데, 만주의 경우, 중국공산당은 1946년 3월부터 1948년 3월까지 2년 동안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 농민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하자, 땅을 분여받은 우리 동포들은 공산당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으며,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중공의 인민해방군에 입대, 국민당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넷째로는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대 정책과 신분보장 및 우리 민족의 자치권에 대한 약속도 우리 동포들이 중공측에 가담하게 된 중요 이유였는데, 8.15해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는 달리 우리 동포의 신분보장은 물론, 자치까지 약속하였다. 예컨대,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6년 12월 중공 길림성 성장(省長) 주보중(周保中)이 '연변조선민족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연변지역에 조선인자치주의 설치를 허

용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동포들은 공산당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우리 동포들이 공산당쪽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만주에서는 본래부터 국민당에 대한 관념이 적었으며, 연변에는 국민당중앙군이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공산당은 일찍부터 신문, 잡지 등의 언론을 장악, 이들을 통하여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을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우리 민족 신문들도 장악, 이들을 선전매체로 활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光復直後 韓民族紙들의 蘇生

위에서 말했듯이, 연변은 일찍부터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건너가 살았던 곳으로서 만주지역에서 우리 민족언론의 발생지이자 중심지였다. 그러나 일제말기에는 우리의 민족지들이 모두 일제에 의해 폐간되고 말았으며, 한글신문으로는 친일지인 <간도협화보>(間島協和報, 1940년 창간)만이 발간되고 있었으나, 광복이 되자 자진 폐간하였다. 그리고 그 대신 다시 우리 한민족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 8.15光復後 최초로 <韓民日報>의 出現

1945년 8.15광복 후, 연변에서는 물론 중국 전체에서 처음 나온 우리의 한글신문은 <한민일보>(韓民日報)였는데, 이는 광복 한 달 뒤인 9월 18일 연변의 연길시(延吉市)에서 우리 동포들에 의해 창간된 최초의 신문이자 민간지였다.

1) <韓民日報>의 創刊과 그 論調 및 性格

<한민일보>의 발행인(사장)은 당시 연변지역에서 대유학자로 알려졌던 용정현 개산둔(開山屯) 서당 훈장이던 한석기(韓奭基)였고,[7] 편집인은

7) 한석기의 漢字名을 延邊日報社編, 『延邊新聞志·延邊日報新聞志』(延吉: 延邊日報社, 1988), p. 137에서는 '韓錫基'로 표기하고 있음.

8.15 광복전 서울의 <매일신문>(每日新聞) 간도지사장이었던 최문국(崔文國)이었으며, 인쇄인은 일제때 신경(新京, 현 長春)의 <만선일보>(滿鮮日報) 간도지사장이던 최무(崔武)였다.

이처럼 <한민일보>는 8.15 광복전에 언론에 종사하였던 우리 민족 민간인들이 창간한 국한문 혼용의 일간지로서 매일 8절지 2면을 발행했는데, 그 보도 기사들을 보면 당시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불문하고 모두 취급하는 동시에 매우 공정하게 다루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합작에 관한 보도 기사에서는 양당의 모순을 다같이 지적하였는가 하면, 그 당시 공산당에서 내세운 '감조감식'(減租減息: 소작료와 이자의 인하) 정책을 지지하였다. 한편 한반도(韓半島)의 정세에 관한 기사들에서도 남북한을 공평하게 보도하였다. 예컨대, 1945년 10월 9일자에서는 "이승만박사, 기자단과 회견, 3천만이 조선을 재건"라는 제목으로 남한 이승만(李承晩) 박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는가 하면, 그 이튿날 지면에서는 "백두산을 울리던 그 목소리 김일성대좌의 사자후"라는 제목으로 북한 김일성의 연설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1945년 10월 25일자 지면에는 "조선공산당 평북지구 확립선언"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그 사흘 뒤인 10월 28일자에서는 "한국임시정부 수령 김구씨 귀국전 장개석 회견," "해외 풍상 36년만에 한국임시정부 요원 25일 김구씨 일행 중경을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런가 하면, <한민일보>는 소련·중국·한국간의 친선에 관한 논설기사도 적지 않게 실었고, "계급이란 무엇인가?", "맑스주의 자본론입문," "10월혁명략전" 등 공산주의 관계 피쳐 기사들도 게재했으며, 1945년 10월 9일에는 "한글 창정(創定) 499년 기념" 특집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또한 <한민일보>는 개업, 서적, 연변대학 학생모집, 광중창극단 공연, 연예인 모집, 학우회 통지, 심인(尋人)등의 각종 광고들도 적지않게 실었다.

2) 共産黨에 의한 <韓民日報>의 강제 廢刊

위와 같은 내용들과 그 논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민일보>는 당시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정치적 견해를 불문하고 모두 취급하는 동시에 매우 공정하게 다룬 중립적인 순수 민간지이자 우리 민족지요, 일종의 상업지로서, "이 신문은 당시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

지 못하고 있는 인민에게 제때에 국내외 시사를 보도해주고 정치이론을 풀이해 줌으로써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정규률, p. 512).

따라서 『연변일보력사지』에서도 "갓 해방된 당시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민족적 의식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문은 적극적인 역할 놀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연변일보사편, p. 150), <한민일보> 스스로도 그 폐간사에서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출발의 등라를 울린 <한민일보> 야말로 교통통신이 두절되여 있던 연변에 있어서 인민에게 지향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였으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8.15 광복 이후 중국 땅에서 처음 창간되어 이처럼 해방직후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민일보>는 1945년 11월 4일 중국공산당 외곽군중단체였던 연변인민민주동맹(延邊人民民主大同盟)이 그 당시 연변에서 중국인이 발간하고 있던 중국어신문 <광복보>(光復報)와 함께 강제로 빼앗아 그 기관지인 <연변민보>(延邊民報)로 만듦으로써 창간 48일만에 34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는데, 그 강제 폐간의 표면적 이유는 "<한민일보>는 국민당계 신문으로서, 구(舊)민주주의와 협애한 민족주의사상을 고취하고 있다"(이창역, 요작기, p. 104)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 당시 이미 연변지역에서 실권을 잡게 되었던 중국공산당이 민간지들을 일단 그 외곽단체의 기관지로 만들어 선전매체로 활용하려는데 있었는데, <한민일보>가 폐간된 후 연변지역에서는 더 이상 순수 민간지(民間紙)는 발간되지 못하고 다만 공산당이나 그 정부기관 또는 외곽단체의 기관지만 존재하게 되었다.

2. 民間紙들의 共産黨機關紙化의 始作

위와 같이 광복 후 처음으로 연변에서 창간되었던 한글신문인 <한민일보>는 1945년 11월 4일 연변인민민주동맹에 의해 강제로 접수되어 그 이튿날 <연변민보>로 개조되었는데, 그러면 연변인민민주동맹이란 어떤 단체였으며, 그 기관지인 <연변민보>는 어떤 성격과 내용의 신문이었는가?

1) 中共外廓團體들의 結成과 延邊民盟의 創立

연변인민민주대동맹(약칭 '민주대동맹' 혹은 '민맹')은 주로 우리 동포들로 구성된 공산당 외곽군중단체로서, 그 전신(前身)은 연변노동자농민청년부녀총동맹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 소련의 붉은군대와 중공의 동북항일련군분견대가 연변에 진주하자 공산당 지하공작원들이었던 지희겸(池喜謙), 강동주(姜東柱), 박동운(朴東云) 등이 용정, 연길, 조양천 등지에서 선후하여 노동자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의 군중단체를 조직,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이들 군중단체들을 통일, 단결시켜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펴기 위해 9월초 용정, 연길, 조양천 등지의 노농청년 대표 20여명이 용정에 모여 예비회의를 갖고 연변노동자농민청년부녀총동맹(이하 '연변노농청부총동맹'으로 약칭)을 결성할 것을 결정하고 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9월 19일 연길시에서 그 대표대회를 소집, 6백여명의 대표들이 참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장(강동주)과 집행위원들을 선거한 다음, 9월 23일 연변노농청부총동맹을 정식으로 결성, 연변 전지역의 공산당계 군중단체를 이끌어 나가며 공산주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에서 동북 각 지구에 '민주대동맹'이라는 외곽단체를 결성하여 군중을 조직, 동원하는 주요 형식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중공연변위원회(뒤에서 상술하겠음)는 연변노농청부총동맹을 보다 광범위한 군중성을 띤 단체로 개편하는 동시에 연변인민민주동맹으로 개칭하기로 하고, 연변노농청부총맹으로 하여금 1945년 10월 27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변노농청부총동맹을 연변인민민주대동맹으로 개편, 개칭할 것을 결의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곧 연변인민민주대동맹(이하 '연변민맹'으로 약칭)이었는데, 그 위원장은 중공연변위원회 선전위원 지희겸으로서 연변민맹은 중공연변위원회 산하 외곽군중단체였다.[8]

---

8) 1946년 2월 20일까지 연변민맹에 가입한 총회원은 14만5천여명에 달했는데, 그 중 우리 동포가 94%를 차지하였음(리창억, 요작기, p. 104).

2) 延邊民盟 機關紙 <延邊民報>의 創刊

<연변민보>는 바로 위와 같은 연변민맹이 국민당에 대항하여 공산당의 정치적 주장과 방침, 정책을 선전하기 위하여 <한민일보>와 <광복보>를 강제로 빼앗아 그 기관지로 개조하여 1945년 11월 5일부터 한글판과 중국어판을 각각 8절지 2개면씩 발간한 일간신문이었는데(백동활, p. 145), 주필은 전(前)연변노농청부총동맹위원장었으며 당시 연변민맹 집행위원이었던 강동주(姜東柱)였다.

<연변민보>는 그 창간사에서 국공합작, 신민주의적 3민주의, 중한(中韓) 군중의 상호제휴 등의 실현을 표방하면서 처음에는 <한민일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 본래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주장과 신사상의 선전"에 있었다(백동활, p. 144). 따라서 <연변민보>는 "창간되면서부터 모택동의 로작 '련합정부에 대하여'를 연재한 동시에 당의 정치주장과 방침, 정책을 선전하여 군중들의 정치각성을 높혔으며"(리창역, 요작기, p. 144), 보도기사들도 주로 공산당 정권의 건립과 당시 지방 정세 등에 관한 것이었다.

IV. 韓民族紙의 共産黨機關紙化

이와 같은 <연변민보>는 위에서 말했듯이 연변민맹에서 창간한 기관지로서 이는 그래도 일종의 민간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변민맹 기관지였던 <연변민보>는 그 창간 19일만인 1945년 11월 24일 길림성(吉林省)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 이하 '연변전원공서'로 약칭)의 기관지로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의 우리 한글신문들은 모두 공산당이나 그 산하기관의 기관지로 전환되었다.

1. 延邊專員公署機關紙로 <延邊民報>의 改造

연변민맹의 기관지였던 <연변민보>를 연변전원공서의 기관지로 만든 것은 중국공산당이 1945년 11월 20일 간도성(間島省) 임시정부를 철폐시

키고[9] 그 대신 연변전원공서라는 행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한글신문 뿐 아니라 중국내의 모든 신문들을 사회주의 체제 언론으로 전환시키는 수순(手順)의 하나였는데, 중공은 처음에는 그 외곽단체를 내세워 신문을 발행하다가 점차 정권을 잡으면서는 그것들을 다시 당이나 그 산하기관의 기관지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변민맹의 기관지였던 <연변민보>도 중공연변전원공서의 기관지로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연변민보>는 '연변동포들에게 알리는 글' 등을 통하여 "연변 각지 인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민주정권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로동정부와 군중단체를 세우며 역량을 장대시키며 새 정부를 옹호하며 새 정부에 협조하여 민주정치를 실행하며 자유, 행복한 새 연변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라"고 호소하였다(이연, p. 109).

한편 1946년 1월, 중국공산당 연변정무위원회에서 '소작과 고용조례'를 채택, '25감조감식제'를[10] 실시하는 동시에 일부 공유지를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자, <연변민보>는 그 선전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러한 <연변민보>는 1946년 5월 중공길동군구(吉東軍區) 정치부(政治部)에서 접수, <길동일보>(吉東日報)로 개제하여 그 기관지로 삼게 됨으로써 모두 104호를 발간하고 폐간되고 말았다.

2. <延邊民報>를 다시 <吉東日報>로 軍報化

위와 같이 중국공산당동북국 길동군구 정치부에서 <연변민보>를 접수, 1946년 5월 4일 <길동일보>로 개제함으로써 <연변민보>는 다시 중공군의 군보(軍報)로 되었는데, 이는 1946년 4월 24일 만주에서 소련군대가 철수하여 곧 국민당군이 남만으로 진공해 오자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

9) 間島省 臨時政府는 8.15광복 직후 중국공산당이 연변지구공작위원회, 즉 '동북항일련군 연변분견대'를 소련 붉은군대와 함께 8월 18일 연길에 진주시켜 괴뢰만주국의 간도성 정부 기관들을 접수, 8월 20일 수립했던 행정기관이었는데, 그 主席은 괴뢰만주국의 간도성 副省長이었던 윤태동이었고 그 직원들도 거의가 괴뢰만주국의 간도성 공서에서 일하던 사람들로서 공산당과 연변민맹에서 제기한 '감조감식제' 등을 반대하는 등 공산당에 약간 비협조적이었음.

10) 그 어떤 소작제거나를 막론하고 원래의 지대에서 25%를 감소시키는 것.

"본보의 사명은 곧 길동의 광대한 인민의 수요에 적응하며 아울러 광대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 함에 있으며 모든 것을 광대한 인민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을 광대한 군중을 동원 조직 단결하야 화평, 민주자유회(懷), 행복한 신동북 신길동 건설을 위하야 분투하려 한다"고 창간사(1946. 5. 4)에서 그 사명을 밝힌 <길동일보>의 사장은 한족(漢族) 이림(伊林)이었고, 주필 유경선(兪京善)과 편집부장 김원청(金遠淸)은 우리 동포였다(『中國新聞年鑑』, 1984년판, p. 643).

<길동일보>도 일간으로서 4절지로 2면씩 매일 발행했는데, 이 신문은 만주지역 신문들 중 처음으로 중공의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의 전문(電文)을 받아 싣기 시작하였으며, "미군정하의 남조선 정세, 장개석과 국민당의 내전(內戰) 책동 등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취급하면서"(『연변일보력사지 · 연변신문력사지』, p. 150), "장개석을 우두머리로 한 국민당을 질책하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정규률, p. 513). 그러나 창간 3개월 뒤 정간되었는데, 중공길림성당위에서 이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합병시켜 그 '조선문판'(朝鮮文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3. 單獨한글紙를 <人民日報> 朝文版으로 格下

이렇게 되어 한글로 된 단독신문이었던 <길동일보>는 창간 3개월 뒤 다시 중국공산당길림성위원회 기관지(黨委報)인 중국어신문 <인민일보>에 합병되어 1946년 9월 1일자로 그 '조선문판'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인민일보> '조선문판'은 어떤 성격과 내용의 신문이었는가?

1) <人民日報> 朝鮮文版으로 格下 理由

우선 이 신문의 발간기관인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와 그 기관지 <인민일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은 8.15 광복 직후 길림에도 길림지구공작위원회를 파견하여 길림특별지부와 길림성사업위원회를 건립하고, 인민무장대와 외곽군중단체들을 조직, 국민당과 대결을 벌이며 그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써 중공길림특별지부에서 1945년 10월 10일 그 기관지로 길림(吉林)에서 <인민일보>를 창간하였는데, 이는 중국어신문

이었으며, 창간 후 7개월간은 길림시에서 발간되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연변의 연길시(延吉市)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1946년 4월 소련군이 길림에서 철수하자 국민당군이 길림지구로 쳐들어 왔다. 그러자, 그 당시 반석(盤石)에 있던 중공의 길요성위원회(吉遼省委員會)와 길림성인민정부가 4월 15일 일단 길림시로 옮겼다가 다시 5월 20일 연길시로 옮겨왔다. 또한 중공의 길료군구(吉遼軍區, 즉 東滿軍區)도 길림시와 장춘(長春)에서 철수, 연길시로 옮기자, 길림시에 있던 길림특별지부도 이때 그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함께 연길시로 옮겨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만(南滿)의 중국공산당 기관들이 연길로 옮겨오자 중공중앙동북국은 1946년 5월 길요성위원회(1946. 1월 건립)를 철폐하고 그 대신 길림성, 길동성, 요북성위원회 등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공길림성위원회가 설립되자 길림특별지부에서 발간하던 중국어 <인민일보>를 그 당위보로 전환시켜 그대로 발간하는 한편, 그에 <길동일보>를 합병시켜 이것은 그해 9월 10일 <인민일보> '조선문판'으로 만들었으며, <인민일보>에서는 '중국어판'과 '조선문판'을 동시에 내게 되었다.

2) <人民日報> 朝鮮文版의 주요 內容

이렇게 되어 그 이전까지는 단독지(單獨紙)로 발간되어 왔던 한글신문이 중국어 <인민일보>의 조선문판으로 전락했는데, 이 조선문판의 책임자는 당시 <인민일보> 부주필인 우리 동포 김평(金平)이었으며,[11] 초기에는 4절지로 4면씩 주 6회 발간하다가 11월 4일부터 주 7회로 매일 발간하면서 주로 '해방전쟁'(국공내전에 대한 중공측 호칭), 토지개혁, 생산건설, 농업합작화운동 등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들을 보도, 선전하였다. 물론 시사에 관한 보도기사도 실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중앙위 직영 신화사통신(新華社通訊)과 '북조선'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제공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인민일보> '조선문판'은 우리의 민족성을 띤 기사도 많이 실었는데 예컨대, 1946년 10월 9일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 500돌을 맞아

11) <人民日報>의 社長은 胡林(漢族), 副社長은 孫蓬(漢族), 主筆(總編輯)은 章欣潮(漢族), 副主筆(副總編輯)은 石果(漢族), 林民鐃(朝鮮族), 金平(朝鮮族)이었는데, 이들 중 김평이 '조선문판'의 책임을 맡았음.

길림성민주연맹에서 인민일보사의 후원 아래 그 기념대회를 개최하자 이를 그 날자 지면에서 "한글 반포 5백주년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이란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였다. 이어서 10월 13일자에서도 다시 "빛나는 조선의 민족문화 한글 반포 500주년 기념식 각계 대표 참가 하에 성대히 거행 한글 연구회결성을 결의", "배우라! 한글을! 한글은 조선민족의 자랑" 등의 기사를 실어 한글을 찬양하고 이를 배울 것을 고취하였다.

그런가 하면, "장관구(蔣管區)에서 울고 있는 조선족 동포"란 연재기사 등을 통하여 국·공 접전(接戰) 지역 우리 동포들의 참상을 보도하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해방전쟁'에 적극 참여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민일보> '조선문판'은 창간 5개월만인 1947년 2월 28일 폐간되었는데 중공길림성위에서 1947년 3월 1일 <인민일보>를 <길림일보>로 개제함으로써 <인민일보> '조선문판'도 그에 따라 <길림일보> '조선문판'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12]

4. <人民日報>를 <吉林日報> 朝文版으로 改題

위와 같이 중공길림성당위에서 1947년 3월 1일 그 기관보인 <인민일보>를 <길림일보>로 개제함에 따라 그 '조선문판'도 <길림일보> '조선문판'이 되었으나, 다만 발간 면수만 종전의 4개면(8절지)에서 2개면으로 줄었을 뿐 그 내용이나 성격상에서는 그 전신인 <인민일보> '조선문판'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중공길림성당위는 왜 <인민일보>를 <길림일보>로 개제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신문의 지방성을 돌출하며 인민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당시 길림해방구(공산당 점령지역을 말함) 군중운동이 보다 심도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하며, 토지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해방구를 공고히 하고, 길림 장개석군 대점령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중운동과 적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민일보>를 <길림일보>로 개

12) 그러나 장규률은, "1948년 3월 11일 우리 군[공산군]이 길림시를 수복함에 따라 [길림]성당위 기관과 <길림일보>(한문판)이 길림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므로 <인민일보>(조선문판)는 자체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되었다"고(정규률, p. 513쪽)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착오임.

칭한 것"이었다(『연변일보력사지 · 연변신문력사지』, pp. 150-151).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제된 <길림일보> '조선문판'은, 당시 <길림일보>의 부총편집(副總編輯, 즉 부주필)이었던 우리 동포 임민호(林民鎬)와 김평(金平)이 발간책임을 맡았으며, 매일 4절지 2면을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길림일보>는 '한문판'도 발행했는데, 이들 두 가지 판의 발행부수는 모두 합쳐 1만 3천부였으며(『연변일보력사지 · 연변신문력사지』, p.151), 그 중 '조선문판'은 8천부에 달했다(『연변일보력사지 · 연변신문력사지』, p.185)고 한다.[13]

<길림일보> '조선문판'의 내용도 그 전신인 <인민일보> '조선문판'과 마찬가지로 해방전쟁, 토지개혁, 생산건설 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길림성당위의 정책과 방침의 선전에 앞장섰다. 그러나 1948년 봄 공산군이 국민당군을 격퇴하고 길림지구를 수복하자 그 해 3월 9일 길림성당위가 길림의 교화현(蛟河縣)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길림일보>도 그와 함께 옮겨갔다. 하지만 이때 '중국어판'만 옮겨가고 '조선문판'은 그대로 연길에 남아있다가 1948년 4월 1일 중공연변지방위원회 기관지인 <연변일보>(延邊日報)로 되었다.

V. 韓民族紙의 共産黨地委黨報化

<연변일보>는 이상에서 살펴본 공산당의 한글기관지들과는 좀 달리, 즉 중국공산당 외곽단체의 기관지나 중공군의 군보(軍報) 또는 중국공산당중앙의 성급(省級) 당보(黨報)가 아니라 중공연변지방위원회의 기관지였는데, 이는 곧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가 가까워오자 만주지역에서 그 지방당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결성하고 그 기관지들도 발간하면서 우리 한글신문 역시 지방당위의 기관지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13)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편,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4)에서는 이들 두 판의 1일 총 발행부수가 1만 7천부에 달했다고 함.

1. 中共延邊地委黨報 <延邊日報>의 創刊

이와 같이하여 중공연변지방위원회의 한글기관지로 창간된 <연변일보>는 중국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교포지로서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948년 4월 1일 창간되었던 <연변일보>는 현재의 <연변일보>의 전신인데, 중공중앙동북국은 1949년 4월 1일 <연변일보>와 남만의 <단결일보> 및 북만의 <민주일보>를 합병, 만주지역 전체 '조선족'을 위한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로 만들었다가 이를 다시 1955년 1월 1일 <연변일보>로 개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변일보>는 1955년 1월 1일 창간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14] 여기서는 <동북조선인민보>로 바뀌기 이전의 <연변일보>에 관해서만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中共地方黨의 公開建黨과 延邊地委의 再組織

<연변일보>의 발간기관인 중공연변지방위원회(이하 '연변지위'로 약칭)에 대하여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연변지위는 본래 1945년 11월 15일 설립되었다. 하지만 1947년 2월 22일 중공길림성 정부가 연변전구(延邊專區)와 길돈전구(吉敦專區)를 합쳐 길동전구(吉東專區)로 만듦에 따라 연변지위와 길돈지위가 취소되고 그 대신 길동지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948년 3월 27일 중공길림성 정부에서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영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길동전구를 다시 연변전구로 고치고, 그 해 4월 16일 길림성위의 결정에 따라 길동지위를 취소하고 다시 연변지위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다시 설치된 연변지위는 길림성위의 지시에 따라 정당(整黨)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급 조직을 확대, 많은 '선진분자'들을 새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1948년 7월에는 그 산하에 34개의 구당위(區黨委), 2백21개의 당지부(黨支部), 5백40개의 당소조(黨小組)가 조직되었으며, 당원수도 모두 2천9백99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 '조선족' 당원은 1천6백89명이었다(이창, p. 145).

하지만 이때까지는 위와 같은 조직들을 비밀리에 결성하다가 '해방전

14) 그러나 현재 <연변일보>사에서는 그 창간년월일을 1949년 4월 1일로 잡고 있음.

쟁'이 공산당의 승리로 굳어지자 연변지위는 1948년 8월 연길현에서 공개적인 건당(建黨) 작업을 시작으로 각 현에서도 공개적 건당작업을 벌였다. 그러자 그 조직이 신속히 발전, 1949년 1월에는 연변지구에 5개 현당위, 52개 구당위, 4백40개 당지부, 8백8개 당소조가 건립되어 공산당 조직계통이 거의 확립되었다.

한편 당원수도 공개적 건당 이전보다 1.2배로 늘어나 모두 5천2백44명이 되었는데, 그 중 '조선족'이 3천8백34명이었다(이창, p. 145). 이처럼 연변지구에서 공산당 조직이 확립되자, 1949년 5월 22일 중공길림성위는 중공중앙동북국의 비준을 거쳐 연변지위를 다시 정식으로 결성했으며,[15] 그 산하에 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도 등 5개 현당위를 두었다.

2) <延邊日報>의 創刊趣旨와 그 特性

<연변일보>는 위와 같이 연변지위가 새로 결성되기 직전인 1948년 4월 1일, 앞에서 말했듯이 <길림일보> '조선문판'을 접수하여 그 기관지로 창간한 것이었는데 그 '창간헌사'(創刊獻辭)에서 중공연변지위 서기 공원(孔原)은 "[연변일보는] 연변지방 조선인민군중의 신문으로서 그의 임무와 목적은 과거 길동일보, 길림일보 조선문판과 마찬가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동시에 민족성, 지방성과 군중성의 특점이 있어야 한다"고 <연변일보>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 임무로는 "중국공산당 모주석의 사상방침을 계통적으로 선전하며 국내외의 중대사건을 요점을 따서 보도할 것이요, 경상적으로 연변인민군중투쟁과 생활동태를 반영하고 토지개혁, 전선(戰線)지원, 특히 금일 춘경(春耕) 생산운동의 정황과 공작경험을 소개하며 때맞추어 당의 호소에 향응하고 당의 주장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연변일보>는 바로 위와 같이, 연변지위 서기 공원이 천명한 목적과 사명을 지니고 창간되었으며, 또한 그가 제시한 3대 사명 내지는 특성,

---

15) 연변지구의 공산당 조직이 확립되자, 그간에 延安에서 파견되어 공산당 조직 사업을 지도하던 중공중앙당 간부들이 1949년 2-3월 사이에 關內로 돌아가고, 그 대신 중공동북행정위원회민족사무처장이던 '조선족' 朱德海를 연변으로 보내, 現地 공산당지도자들과 연변지위를 운영케 했음.

즉 군중성, 민족성, 지방성을 그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들 군중성, 민족성, 지방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군중성'이란 <연변일보>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의 하나로서 공산당의 노선(路線), 방침, 정책 등을 군중들에게 적극 선전하여 관철해야 한다는 일반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었다. 즉 공원이 밝혔듯이, <연변일보>도 "중국공산당의 지도 밑에서 조선인민군중의 선전자 또는 조직자가 되며 그들의 후설(喉舌)과 도구로서,..중국공산당 모주석의 사상방침을 계통적으로 선전하며...당의 호소에 향응하고 당의 주장을 관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민족성'이란, '조선인민군중'을 대상으로 한 소수민족(少數民族) 신문으로서 <연변일보>가 지녀야 할 특수 사명으로서 곧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추진, 일심협력하여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자"는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을 적극 선전·관철시키는 한편, '조선민족'의 교육문화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지방성'이란 <연변일보>의 또 하나의 특수한 사명으로서 곧 <연변일보>는 중공 지방당위(地方黨委)의 기관지이므로 공산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전파할 때 종합적인 보도를 잘하는 동시에 연변지방의 실제에 입각하여 그에 지방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延邊日報>에 대한 黨의 指導·監督體制

바로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 사명과 특성을 지니고 창간된 <연변일보>는 그 전신인 성급(省級)의 기관지 <길림일보> '조선문판'과는 달리 지방당위 기관지로서 이는 8.15 광복 이후, 연변지역에 공개적으로 배포된 한글신문들 중 최초의 종합지였었는데, 그 발간주체인 중국공산당 연변지위에서는 <연변일보>가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사명과 특성을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였다.

창간 초기 <연변일보>는 사장(社長) 책임제를 실시하여 사장에게 신문사의 전반적 사업을 주관케 하였으나, 초대(初代) 사장은 연변지위 선전부장 최채(崔采)를 겸임시켰으며, 신문사의 운영, 편집방침, 인사문제 등에 관한 중요 사항들은 모두 연변지위에서 직접 결정하고 또한 운영경비도 담당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언론의 특색으로서 <연변일보>의 경우

뿐 아니라 그 당시 중국내의 모든 공산당 지방조직들의 기관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변일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중공연변지위는 또한 신문사내에 당지부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창간 초기에는 사내에 독립적인 당지부를 따로 두지 않고, 연변일보사, 연변출판사, 연변가무단(延邊歌舞團) 등 세 개 단위를 한데 묶어 연합당지부를 두어 연변일보사의 운영과 신문의 편집방침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지도, 감독하며 사원들의 인사도 관리케 하였는데 당시 그 연합당지부의 서기도 역시 <연변일보> 사장 최채가 겸임하였다.

또한 창간된 해 11월에는 신문사내에 중국신민주주의청년단(약칭 '공청단') 연변일보사지부도 설치, 이들로 하여금도 신문사의 공산당 선전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였다. 따라서 <연변일보>는 중공연변지위와 그 연변일보사당지부, 그리고 공청단의 지시와 지도, 감독을 함께 받으며 신문을 발간하였다.

4) 創刊 初期 <延邊日報>社의 機構組織

<연변일보>는 위와 같이 중공연변지위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 아래 운영, 발간되었으며, 신문사내의 부서들에서는 다만 실무만 담당하였는데, 초대(初代) 사장은 위에서 말했듯이 연변지위 선전부장 최채(崔采)가 겸임했으며, 부사장은 한족(漢族)인 석과(石果)였다. 그리고 그 아래 주필을 두어 신문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시켰는데, 초대 주필은 그 전에 <길림일보> 부주필로서 그 '조선문판' 발간책임자였던 임민호(林民鎬)였다.[16]

신문사의 조직구조는 크게 출판기구, 인쇄기구, 관리행정기구로 나누어졌는데, 출판기구인 편집부에는 통련과(通聯科), 편집과(編輯科), 편역과(編譯科), 부간과(副刊科), 교대과(校對科, 즉 교정과), 전무과(電務科)가 있었으며, 이들 부서의 총원은 35명이었다. 그러나 모든 공산당기관지들이 그렇듯이 <연변일보>도 '전당(全黨) 전인민(全人民)이 신문을 꾸리는 방침'에 따라 수백명의 통신원들을 각처에 두어 이들로부터도 기사원고를

16) 창간 당시, 社屋은 延吉市 光明街의 新華書店 건물에 있었으나, 그 이듬해 3월 중순경, 建設街의 연길다리 북쪽으로 이전하였음.

받아 실었다.[17]

한편 인쇄기구인 공장지도부에는 4개 작업반, 즉 문선반(文選班), 식자반(植字班), 인쇄반(印刷班), 활자주조반(活字鑄造班)을 두었는데,[18] 이들 부서의 인쇄노동자는 모두 54명이었다. 그리고 신문사의 관리행정기구로는 경리부와 비서실이 있었다.

이밖에 발행과(發行科, 즉 보급판매과)가 있어 신문의 발송을 맡았는데, <연변일보>는 주 6회, 매호 1만 5천4백8부를 발행했으며(『연변일보력사지·연변신문력사지』, p. 169),[19] 배포 범위는 연변지구내의 각 현과 시(市)에 국한되었고, 신문의 배포는 신문사내의 발행과에서 각 현(시)의 공급합작사에 신문을 보내면 그 합작사들에서 독자들에게 배달하였다.

5) <延邊日報>의 編輯方針과 주요 內容

창간 초기에 <연변일보>는 4절지 4면씩 주(週) 6회를 발간하였는데,[20] 1면은 중요 소식면, 2면은 공업과 농업 소식면, 3면은 문화교육 소식과 부간면(副刊面), 그리고 4면은 국제, 국내 소식과 광고면이었다. 이와 같은 판면(版面) 체제는 창간시부터 1985년 12월 31까지 36년 동안이나 그대로 고수되었으며, 보도기사들은 지방원고를 60%, 중공중앙의 신화사(新華社) 통신원고를 40%로 규정하였으나,[21] 때로는 신화사원고가 60-7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창간 초기는 한글만 쓰다가 1948년 10월 1일

17) <연변일보>는 이들 통신원을 위해 그 창간 직후인 1948년 4월 25일 <통신사업>이라는 내부용 간행물을 창간, 이를 이용하여 통신원들의 기사작성 습작을 지도했으나, 모두 8호를 내고 1949년말 정간되었음.

18) 인쇄공장은 앞서 <길동일보>의 인쇄공장과 용정에 있던 吉東專區의 인쇄공장을 합병하여,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東滿日報> 인쇄소 자리에 새로 차렸는데, 인쇄시설은 낡아빠진 발디딤식 4절지 평판인쇄기 3대, 8절지 평판인쇄기 1대, 수동식 주조기 2대, 손잡이 절단기 1대 뿐이었음.

19) 그러나 같은 책, p. 28에는 15,408부로, p. 35에는 10,500부로, p. 45에는 8천부로 기록되어 있음. 한편 정규율(p. 515)은 약 8천부였다고 말하고 있음.

20) 그러나 『연변일보력사지·연변신문력사지』, p. 35에서는 창간 초기 <연변일보>는 "2절지 4개면으로 주6기를 꾸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으로서 당시 연변일보사 인쇄공장에는 2절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조차 없었으며, 다만 발디딤식 4절지 평판인쇄기 3대와 8절지 평판인쇄기 1대가 있었을 뿐임.

21) 이 규정은 창간시부터 1965년 12월말까지 고수되었음.

부터는 한글을 위주로 하되 한자(漢字)도 약간 섞어 쓰기 시작하였으나, 어려운 한자에는 토를 달기도 하였다.

모든 기사들은, 위에서 말한 <연변일보>의 세 가지 사명 내지는 특성, 즉 군중성, 민족성, 지방성을 기준으로 그에 부합된 것들만 철저하게 게재하였다. 따라서 신문의 내용도 이들 세 가지 특성을 반영하는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첫째로 군중성 기사로는, 창간 초에는 '인민해방군'에 참군(參軍)하도록 군중들을 선동, 독려하는 기사가 가장 많았는데,[22] <연변일보>의 창간 당시는 아직 국공내전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중공의 승리가 가까워지면서는 인민해방군의 승전보(勝戰報)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막바지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군중들을 선동, 독려하였다. 한편 생산을 독려하는 군중성 경제관계 기사들도 많이 실었는데, 당시 중국공산당은 "사람을 부르면 사람이 나갈수 있고, 물자를 요구하면 물자를 내놓을 수 있으며, 쌀을 요구하면 쌀을 줄 수 있게 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전쟁 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생산운동과 호조합작(互助合作) 운동을[23]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민족성 기사들로는, 중공의 소수민족정책을 관철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추진하여 일심협력 아래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실었다.[24] 또한 우리 민족 중, '해방전쟁'을

---

22) 예컨대, "연길, 화룡 260명 청년 용약 참군", "향토방위는 남아의 본회(本懷)!", "태평, 태양, 양구(兩區) 11명 건아 참군!", "신전사들은 '안심하시오, 장개석의 진공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돌아 오지 않겠소'라고 맹세했다," "길동(연변) 5,000명 건아 참군," "연길시 255명 담가대원 전선으로" 등의 커다란 제목의 기사들을 통하여 군중들에게 인민해방군에의 참군을 선동, 독려하였음.

23) 이는 특히 농민들로 하여금 '互助組'라는 공동작업반을 조직, 농지를 공동경작케 한 운동을 말하는데, <연변일보>의 창간 당시, 연변지구의 토지개혁은 이미 끝나, '耕者之有田'은 실현되었으나 '해방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나가고 인력과 마소도 부족하였으며, 또한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았지만 워낙 밑천이 없어 제대로 경작할 수 없게 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이러한 운동을 벌이게 되었음.

24) 예컨대, 1948년 4월 1일자 창간호에서부터 '민족단결'이라는 고정칼럼(專門欄)을 설치하고, 때때로 '민족단결의 꽃 만발하네', '소수민족의 풍토와 인정' 등의 특집도 마련, 중공의 소수민족정책을 선전하였음.

지원하거나 산업의 발전시키는데 모범적인 인물이나 사례들을 찾아 이들을 널리 보도, 선전하였다.[25]

셋째로, 지방성 기사로는 주로 연변지방의 산업발전에 대한 공산당의 업적을 보도, 선전하였다. 예컨대, 1948년 7월 10일자 1면에서는 "연변은 건설중에 있다"는 제목으로 당시 연변의 각종산업의 발전 상황을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 선전하였으며, 1949년 1월 1일자에서는 "연변은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2~3면에 걸친 커다란 통단제목(중국에서는 이를 '通欄標題'이고 부름) 아래, 1948년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거둔 업적들을 크게 보도, 선전하였다.

6) <延邊日報>의 폐간과 韓民族紙들의 統合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방침 등을 선전해 왔던 <연변일보>는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창간 후 1년 동안 모두 3백48호를 내고 일단 폐간되었고, 1949년 4월 1일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로 변신하였다가 1955년 1월 1일 다시 <연변일보>로 되어 오늘날까지 발간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면 1948년 4월 1일 창간되었던 <연변일보>는 왜 폐간되었는가?

그것은 1948년 11월 만주 전지역이 중국공산당군에 점령되자 중공중앙 동북국에서 그 당시 만주에서 발간되던 모든 공산당계 한글신문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 그에 따라 중공동북행정위원회에서 동만의 <연변일보>와 남만의 <단결일보>(團結日報) 및 북만 송화강성(松花江省, 현 黑龍江省) 하얼빈의 <민주일보>(民主日報)를 합병하여 1949년 4월 1일 만주지역 거주 전체 '조선족'을 위한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연변일보>와 함께 남만의 <단결일보>와 북만의 <민주일보>도 모두 폐간되었는데, 그러면 1945년 8.15 광복 이후 전환기에 남만과 북만지역의 우리 한민족 신문들의 실태를 간단

25) 이러한 모범적 인물로서 <연변일보>는, 延吉縣 東城鄕에서 첫번째로 常年互助組를 조직한 金時龍을 우리 민족의 모범적 본보기 인물로 내세워 그의 선진적 사상과 모범적 업적들을 크게 보도·선전하였는데, 이는 각 민족 중에서 모범적 인물을 내세워 그를 '본보기'로 선전하는 것은 곧 중공의 민족정책을 구현시키는 방법의 하나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음.

히 소개한 뒤 다시 <동북조선인민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光復後 南滿의 韓民族紙들과 <團結日報>

8.15 광복 이후 국공내전기에 남만지역은 중국 공산당군과 국민당군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글신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다만 심양(瀋陽, 현재 중국에서는 '沈陽'으로 표기함)과 통화(通化)에서 각각 몇 종씩 발간되었을 뿐이다.

1) 瀋陽의 한글新聞들과 그 實態

우선 심양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광복이 되자 공산당계 우리 동포들의 군중단체인 조선독립동맹남만공작위원회(朝鮮獨立同盟南滿工作委員會)에서 1945년말 <외교청년보>(外僑青年報)를 발간하였고, 1946년 초에는 이병훈(李炳勳)이 심양시 서탑에서 역시 공산당계 신문인 <청년단보>(青年團報)도 창간하였다(『沈陽朝鮮族志』, p. 125). 그러나 이들 신문은 1946년 5월 중국국민당중앙군(국부군)이 심양을 점령하자 폐간하고 말았으며, 그 대신 국민당계 <동북한보>(東北韓報)와 <신건설> (新建設> 등의 한글신문이 창간되었는데,[26] 이상과 같은 신문들 중 <외교청년보>와 <동북한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외교청년보>는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조선독립동맹남만공작위원회(이하 '동맹남만공위'로 약칭)에서 창간한 신문으로서 8.15 광복 직후, 심양에서 최초로 발간된 한글신문이었는데 동맹남만공위는 당시 중국공산당동북국의 투쟁방침에 따라 광범한 조선족지구에 심입(深入)하여 민족정책을 선전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군대모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심양시의 우리 동포들의 집거(集居) 지역인 서탑(西塔) 거리에서 <외교청년보>를 창간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국민당에 반대하면서 중국공산당의 노선과 정책 및 맑스주의 사상 등을 선전하는 한편, '조국해방' 등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다. 한편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이 신문은

---

26) 그러나 『沈陽朝鮮族志』, p. 121에서는 <東北韓報>를 <東北朝報>라고 기록하고 있음.

그 지면에 '조선어전란'(朝鮮語專欄)이라는 고정 특집난을 설치,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소개하면서 이를 배우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청년보>는 곧 정간되고 말았는데, 그 발행단체였던 동맹남만위가 조선의용군 제 1지대를 따라 1945년 12월 20일 통화(通化)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 다음 <동북한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주화대표부관동판사처(大韓民國臨時政府駐華代表部關東辦事處)의 기관지로서 1946년 6월 중국국민당 중앙군(국부군)이 심양을 점령한 뒤 창간되었다. 이 신문을 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주화대표부관동판사처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명, 재산의 보호 및 독립운동의 잔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당 정부와 협상, 남경(南京)에 대한민국임시정부주화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뒤 1946년 6월, 장개석의 국부군이 심양을 점령하자 만주 거주의 우리 교민(僑民)들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심양에 설치했던 그 산하 기관이었다.

<동국한보>의 사장은 허우성(許雨星)이고 편집국장은 현태균(玄泰均)이었다. 8절지 2면의 일간(日刊)이었던 이 신문은 주로 만주지역의 우리 교포들의 생활을 보도하는 한편, 중국, 한국 및 세계의 정세도 보도하였는데, 그 논조는 반공적(反共的)으로서 곧 국민당과 남한을 지지하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48년 9월, 심양이 중공군에 함락되자 <동북한보>는 창간 3년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2) 通化의 한글新聞들과 <團結日報>

한편, 통화(通化)에서는 <민주일보>(民主日報)와 <단결일보>(團結日報)가 나왔다. <민주일보>는 남만지구조선인민민주동맹 기관지였는데, 그 발행기관인 조선인민민주동맹은 앞에서 언급한 심양의 동맹남위가 1945년 12월 20일 통화(通化)로 옮겨와서 그 이듬해 초 통화지구 동북조선인민민주련맹공작위원회로 개칭하였다가 2월 10일 다시 남만지구조선인민민주동맹(이하 '남만민맹'으로 약칭)으로 개칭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남만민맹이 1946년 3월 통화시에서 그 기관지로 창간한 것이 <민주일

보>였는데, 그 발간책임자는 양우편(楊宇平)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시험판을 몇 호 내다가 그 해 7월 신문사를 임강(臨江)의 대율자(大栗子)로 옮겼다가 8월에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이홍광지대(李紅光支隊)기관지 <단결시보>(團結時報)에 병합되었다.

<단결시보>는 중공군 산하 조선의용군 이홍광지대 정치부에서 1947년 12월 25일[27] 요동성(遼東省, 현 遼寧省) 통화(通化)에서 창간한 일종의 군보(軍報)였으나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의용군 이홍광지대의 본래 명칭은 조선의용군 제 1지대였는데, 이 지대는 8.15 광복 직후 심양에 진입하여 주둔하고 있다가 1945년 12월 19일 그 본부를 통화로 옮겨 활동을 계속하며 그 이듬해 2월 23일, 항일전쟁시 우리 민족의 영웅이던 이홍광(李紅光) 장군을 기념하여 '이홍광지대'로 고쳤다.

이러한 조선의용군 이홍광지대는 본래부터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선동, 선전활동에 관심이 많아 국민당군이 임강(臨江)으로 진군해 오자 1946년 8월 임강의 대율자(大栗子)에 있던 남만민맹 기관지 <민주일보>를 접수, 그 인쇄소를 9월말에 북한의 후창군(厚昌郡)으로 옮겨 놓고 그 곳에서 홍광사(紅光社)라는 명의로 1946년 12월 <홍광>(紅光)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또한 <홍광화보>(紅光畵報)도 간행하였다.

그러다가 1947년 7월, 중공군이 종전의 방어로부터 전략적 공격으로 그 전략을 전환, 국민당군에 대한 총공세를 개시하자 이홍광지대사령부에서는 "총포가 불을 토하는데 배합하여 붓대도 불을 토하는 신문을 발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이 지시에 따라 이홍광지대 정치부는 7월 하순 북한의 후창군에 사람을 파견하여 인쇄기를 다시 옮겨다가 통화시(通化市)에 있던 요동일보사(遼東日報社)에 설치하는 등 수개월의 준비 끝에 1947년 12월 25일 <단결시보>를 창간하였다.

<단결시보>의 주임은 전신규(全信奎)이였고 주편(主編)은 백남표(白南杓)였으며, 그 아래 통신조(通信組), 통련조(通聯組), 편집조(編輯組)를 두었는데 통신조 조장은 김현대(金顯大), 통련조 조장은 김상한(金相漢), 편

27) 이 신문의 창간 연월일에 대해서 백구령(1992, p. 531)은 1946년말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1947년 11월초라는 說도 있으나, 『中國新聞年鑑』 1984年版, p. 643에는 1947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료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확실한 것 같음.

집조 조장은 선우영국(鮮于榮局)이었다. 이들 중 백남표는 일본 동경 상지대학(上智大學) 신문학과(新聞學科) 제 1회 졸업생이었으며, 김현대는 상해 복단대학(復旦大學) 졸업생이었다.

창간 당시 <단결시보>는 주 1회 또는 주 2회간이었으나, 그후 주 3회를 발간하면서 그 제호를 <단결일보>(團結日報)로 바꾸었다. 판형은 2절지였으며 매호 2면씩 발간하였는데, 1면에는 전선(戰線)의 소식, 지대의 전투 소식, 토지개혁 등에 관한 보도기사 등을 실었으며, 2면에는 중국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의 활동 등에 관한 보고와 특집 등을 실었다.

<단결일보>의 독자대상은 이홍광지대의 장병과 남만의 우리 동포 대중이었는데, 신문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이홍광지대의 각 연(聯)마다 독보(讀報) 구락부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독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밤마다 모여 앉아 독보회를 열게하고 낮에도 밭머리에서 독보모임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단결일보>는 이홍광지대의 장병들과 남만 거주 우리 동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특히 공산당의 승리를 선전함으로써 일반 우리 동포들을 공산당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약 반년동안 발간되다가 재정난으로 1948년 5월 정간되었다. 그후 중공군이 남만 일대를 거의 점령하자 <단결일보>는 동년 9월 안동(安東, 지금의 丹東)으로 옮겨갔으나, 역시 경비가 없어 신문을 발간치 못하다가 그 해 초겨울 중공군이 심양을 점령하자 11월 신문사를 다시 심양으로 옮겼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중공군이 만주를 완전 점령한 뒤 중공동북행정위원회에서 만주지역 한글신문들을 모두 합병, <동북조선인민보>로 만들기로 결정함에 따라 1949년 1월 폐간되었다.

3. 光復後 北滿의 韓民族紙들과 <民主日報>

위에서 말했듯이, 8.15 광복 이후 국공내전기에 남만은 양쪽군들간의 접전(接戰)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신문들도 많지 않았으나, 그래도 비공산당계 신문들도 있었다. 그러나 관내(關內)에서 멀리 떨어진 북만은 일찍부터 공산당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공산당계 한글신문들만 존재했는데 북만에서는 목단강시(牧丹江市)와 하얼빈시에서 각각 한글신문

들이 발간되었다.

1) 牧丹江市 유일의 <人民新報>의 創刊과 廢刊

우선 목단강시의 <인민신보>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이 신문은 8.15광복 이후, 북만에서 처음 나온 한글신문으로 1945년 10월 16일 목단강시고려인민협회(牧丹江市高麗人民協會)에서 창간했으나,[28] 실제로는 중공목단강지구 조선인공작위원회의 직접 혹은 간접적 지도 아래 운영되었는데 이는 8절지 2면의 국한문(國漢文) 혼용 일간지(日刊紙)로서 발행부수는 약 7천여부였다.

초대(初代) 사장은 한송운(韓松雲)이었으나, 창간 1개월 뒤부터는 이홍렬(李洪烈)이 줄곧 사장직을 맡았는데,[29] 그 창간 25일 뒤인 1945년 11월 10일, 고려인민협회는 목단강시와 그 주위의 각 현 대표회의를 열고 고려인민협회의 명칭을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고치면서 <인민신보>의 사장을 이홍렬로 교체하였기 때문이다. 다음해 3월 5일,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제 3차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다시 조선인민주동맹으로 재조직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민신보>도 그 기관지로 되었다가 또다시 1946년 9월 북만지구조선인민주연맹(北滿地區朝鮮人民主聯盟)의 기관지로 바꾸게 되었다. 왜냐하면 흑룡강성, 눈강성, 합강성, 송강성 등지의 조선인민주동맹 또는 민주연맹의 대표들이 하얼빈에 모여 1946년 9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개최한 제 3차 집행위원회확대회의에서 조선인단체들을 모두 통합하여 북만지구조선인민주연맹을 결성하고, 그 산하 각지의 단체들의 명칭도 모두 '민주연맹'으로 통일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발간기관이 바뀜에 따라 <인민신보>의 논조와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는데 고려인민협회 기관지였던 창간 초기에는 시사정치에 관한 보도에서 대체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국민당에 관한 것도 보도하고 공산당에 관한 것도 보도하였으며, 남한의 이

28) 그러나 『中國新聞年鑑』 1983年版, p. 644에서는 이 신문의 창간년월일이 1945년 12월으로 되어있음. 한편 서명훈 등(p.136)은 이 신문은 원래 조선인민동맹 목단강시위원회의 기관지였다고 말하고 있음.

29) 그러나 위의 『中國新聞年鑑』1983年度版, p. 644에는 이 신문의 主辦人(사장)이 李鴻烈, 趙慶洪, 許律의 順으로 되어 있음.

승만(李承晩)과 북한의 김일성(金日成)에 관한 것도 보도하였다. 또한 뉴스원도 비교적 다양하여 중공 신화사통신을 비롯하여 북한의 중앙통신사 및 세계 각 주요 통신사의 전문(電文)들도 실었다.

하지만 그 발간기관이 1945년 11월 10일 조선민족해방동맹으로 바뀌고, 사장도 이홍렬로 교체된 뒤인 연말(年末)부터 그 보도의 경향성(傾向性)이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를 공산당측에서는 '명랑화'(明朗化)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신보>는 공산당의 시정방침을 옹호하고, 국민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주로 게재하게 되었다. 예컨대, 1946년 1월 7일자에서는 '장정권진단서'(蔣政權診斷書)라는 제목의 만필(漫筆) 기사를 통하여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예컨대, 1946년 12월 18일자 지면을 보면, '장개석(蔣介石)의 또 한가지 매국적 죄행(賣國的罪行)'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중국국민당 장개석 총통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동포들에게 공산당 가담을 선동하는 기사들도 많이 실었는데, 당시 중공목단강지구위원회 서기 겸 목단강군구 정위(正尉)이자 소련군 목단강주둔군 부사령원(부사령관)이던 김광협은 이 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국민당 반동파가 조선사람을 학살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람들이 공산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므로 조선 사람들은 반드시 공산당의 영도 밑에 동북을 지켜 싸우는 투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0]

이처럼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의 선전에 앞장 섰던 <인민신보>는 그러나 창간 2년 5개월 뒤인 1948년 3월 2일 폐간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중공중앙동북국이 <인민신보>와 그 당시 하얼빈의 조선의용군 제3지대에서 발간하던 <전투보>(戰鬪報, 1947년 3월 창간)를 합병하여 1948년 3월

30) 또한 1946년도 8.15 해방 1주년 기념일에는 "중한(中韓) 두 민족은 갈라 놓지 못한다"는 제목의 수녕성군구 사령관 유현권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유현권은 이 글에서 일본침략자와 싸워서 이긴 중한 두 민족의 역사를 회고한 다음, "중한 두 민족은 긴밀히 단결하여 공동의 원수 국민당 반동파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며 평화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호소하였음. 같은 호(號)에는 또한 "중한인민은 단결하자"는 제목의 목단강시 시장 초지원의 글도 실렸는데, 그는 "국민당반동파가 중국해방구를 향해 대거진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의 중한인민이 민주자유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으니 중한인민은 단결하여 공동의 혁명임무를 위해 분투하자"고 주장하였음.

3일, 중공동북행정위원회민족위원회(中共東北行政委員會民族委員會) 기관지인 <민주일보>(民主日報)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하얼빈 최초의 <新民日報>의 創刊과 廢刊

한편 하얼빈(哈爾賓)에서는 목단강시의 경우보다 7개월 뒤인 1946년 5월 <신민일보>(新民日報)라는 제호의 한글신문이 8.15 광복 후 처음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은 공산당계 우리 동포들의 단체인 하얼빈시조선인민주연맹에서 그 결성 직후 기관지로 창간한 것이었다. 그 창간목적은, "당시 동북의 적아(敵我: 국민당과 공산당을 말함)간의 역량대비에서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였다.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발동하여 묶어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인민을 발동하는 것은 우리의 력량을 강화하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족군중들속에서 선전고동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창간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방침(목적)은 조선민족들에게 중국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 등을 선전하여 그들의 각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서명훈 등, p. 136)고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창간한 <신민일보>의 주필은 하얼빈시조선인민주연맹 선전부 책임자 박진용(朴振容)이었고, 사원은 모두 11명이었다. 이 신문은 일간(日刊)으로 매호 8절지 2면을 활판으로 발간했는데, 기사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썼다 독자대상은 주로 할빈시내의 우리 동포들이었으며, 신문의 내용은 주로 국내외 형세에 관한 보도와 '신민주주의' 혁명의 임무, 중국공산당의 주장과 그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선전 및 우리 동포들에게 '해방전쟁'에 적극 참가토록 선동하는 것들이었다.

<신민일보>는 위에서 말했듯이 하얼빈시 조선인민주연맹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나 4개월 뒤인 1946년 9월 북만지구조선인민주연맹 기관지로 되어 그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인민신보>에서 이미 말했듯이 중국공산당은 그 당시 북만지역 여러 곳에 결성되어 있던 조선인민주동맹 또는 민주연맹 등 우리 민족군중단체들을 모두 통합, 북만지구조선인민주연맹으로 재조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민일보>도 자연히 북만지구조선인민주연맹 기관지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 발간은 동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당시

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의용군 제3지대 정치처 주임이며 민주연맹 주임인 정경호였다. 따라서 <신민일보>는 정경호의 지도밑에 발간되다가 (김필정, p. 524) 창간 11개월만인 1947년 4월 정간되었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3) <戰鬪報>의 創刊과 <民主日報>로 改造

위와 같이 <신민일보>는 창간 11개월만에 정간되고 말았으나, 그 전(前) 달인 1947년 3월, 하얼빈에서는 또 하나의 한글신문인 <전투보>(戰鬪報)가 창간되었던 바, 이는 당시 할빈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의용군 제3지대의 정치처(政治處)에서 발간한 군보였다.

이 <전투보>는 처음에는 8절지 크기의 등사신문이었으나 1947년 5월부터는 활판인쇄를 했는데, 그 주독자대상은 조선의용군 제 3지대 장병들이었으며, 따라서 내용도 주로 그 지대 내의 부대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해당 부대의 임무와 부대원들의 문화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기사들과 병사들의 모범적 업적과 전투생활의 방식 등에 관한 보도기사 및 혁명상식 등에 관한 글들을 주로 실었다. 하지만 그밖에 토지개혁을 선전하기 위한 글들도 실었다.

주필은 그 당시 조선의용군 제 3지대 정치처 선전과장이던 김만선(金萬善)으로서 그가 신문발간에 관한 총책임을 졌으며 구체적 실무책임은 최태윤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모두 27명의 장병들이 각각 편집, 번역, 인쇄 등의 신문발간 업무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보>는 창간 1년만인 1948년 3월말 폐간되고 말았는데, 중공중앙당동북국에서 이 <전투보>와 목단강시의 <인민신보>를 합병하여 <민주일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北滿의 한글紙들을 <民主日報>로 統合

위와 같이 중공중앙동북국에서 하얼빈의 <전투보>와 목단강시의 <인민신보>를 합병, 1948년 4월 1일 <민주일보>로 만듦으로서 북만지구에서는 하나의 한글신문만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중국공산당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중요 이유는, 첫째 <인민신보>가 그 당시 하얼빈에 있던 중공중앙

당동북국 및 동북행정위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운 뉴스와 사실들은 적기(適期)에 포착할 수가 없으며, 둘째 <인민신보>와 <전투보>를 각각 발간함으로써 신문제작진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되며, 셋째 인민해방전쟁에서 중공의 승리로 '해방구'(解放區)가 날로 확대되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 이들 두 신문을 합병해야 신문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민족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그 중요 이유였는데 중공은 1948년 3월 동북행정위원회에 민족사무처를 설치하는 한편, 북만의 각 현정부에도 연이어 '민족과'(民族課)를 설치, 소수민족에 관한 사업을 관리케 하였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공중앙동북국은 북만지역에서 발간되던 <인민신보>와 <전투보>를 합병, <민주일보>로 만들어 1948년 4월 1일부터 하얼빈에서 발간하게 하였는데, 그 창간사에서 "<민주일보>는 그 제호와 마찬가지로 오직 인민의 벗이 되어 인민에게 읽혀지고 배워지며 인민의 손으로 고쳐져서 공작의 벗이되고 힘이 되는데서만이 민주일보의 생명은 존재할수 있을 것이며 임무는 완성되는 것이다"...따라서 "일체의 민주활동과 민주운동을 고동하는 힘이 될 모든 소식을 실으며 민주를 애호하는 전체인민과 민주건설의 위대한 과업에 이바지하려한다"(<민주일보>, 창간호, 1948. 4. 1)고 그 창간 취지 내지는 목적을 밝혔다.

이러한 목적의 <민주일보>는 창간 초에는 조선의용군 제3지대에서 발간하였으며, 초대(初代) 사장(社長)은 제 3지대 정치위원인 주덕해(朱德海)였고 부사장(副社長)은 이욱성(李旭成)과 김만선(金萬善)이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 제 3지대가 남만의 전선(戰線)으로 떠나게 되자, 중공동북행정위원회 민족사무처(東北行政委員會 民族事務處)에서 그 기관지로 발간하였는데(김필정, p. 525), 이때 사장은 이욱성, 총편집(總編輯, 즉 主筆)겸 부사장은 김만선, 부총편집은 이인순, 지부서기는 김동규, 공무부장은 지문상, 경리부장은 전동련이었으며, 편집부원은 정룡수, 이홍규, 김상범, 임효원 등이었다.

<민주일보>는 일간지로서 창간 초기에는 4절지 2면을 내다가 1948년 7월부터는 4절지 4면씩 발간했는데, 이 신문은 당시 송강성과 흑룡강성의 광범한 우리 동포들의 집거지구에 배포되었다. 내용은 주로 국내외 정세, 우리 민족지구의 토재개혁, 농공업생산, 문화교육, 정권건설, 전선원호 등

에 관한 소식과 그 사업경험 등에 관한 보도와 선전기사들이였는데 이들 기사는 중공의 신화사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전문(電文) 및 해당 신문사의 기자가 취재한 것들과 각지 지방통신원들이 송고하는 것들이었다. 이밖에 중국공산당의 방침과 정책 등에 관한 글들도 많이 번역하여 실으면서, 그것들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민주일보>는 그러나 1949년 3월까지 1년 동안 발간되다가 폐간되었는데 중공중앙동북국에서 북만 하얼빈의 <민주일보>와 남만의 <단결일보> 및 동만 연변의 <연변일보>를 모두 합병하여 1949년 4월 1일 <동북조선인민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민주일보>에서 그 자매지(姉妹紙)로 발간하던 <동북어린이신문>도 폐간되었는데, 이는 주덕해의 지시에 따라 <민주일보>사가 위탁을 받아 1948년 5월 창간한 8.15 광복 후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어린이 한글신문으로서 당시 <민주일보>사 기자였던 김태희(金太熙)와 임효원(任曉遠)이 맡아 발간하였다. 이 <동북어린이신문>의 창간목적은 우리 민족 어린이들의 사상과 교양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들이였으나, 아동문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신문은 창간 초에는 8절지 2면이었으나, 1948년 7월부터는 4절지 4면씩을 발행했는데 배포범위는 만주(동북) 전체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동북어린이신문>도 <민주일보>와 함께 폐간됨으로써, 8.15 광복 후 중국에서 최초로 나왔던 우리 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신문은 애석하게도 사라지고 말았다.[31]

VI. 共産黨한글黨報들의 統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11월 중국공산당이 만주 전지역을 점령할 당시, 만주에는 세 개의 한글신문들이 있었다. 그러나, 중공중앙동

31) 하지만 1957년 7월 1일 <연변일보>사에서 연변인민출판사 발간의 <소년아동>(1950년 4월 창간)이라는 소년잡지를 인계받아 이를 <소년아동보>라는 제호의 어린이신문으로 고쳐 발간하게 됨으로써 다시 우리 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신문이 나오게 되었음.

북국에서 이들 세 개의 신문들, 즉 동만 연변의 <연변일보>, 북만 할빈의 <민주일보> 및 남만의 <단결일보>를 합병, 1949년 4월 1일 만주지역 전체의 '조선족'을 위한 <동북조선인민보>(東北朝鮮人民報)로 만듦으로써, <연변일보>, <민주일보>와 <단결일보>는 자동적으로 폐간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동북조선인민보>가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 중공동북국에서 이처럼 한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만주 전역을 점령하자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민족 신문들도 하나로 묶어 이를 공산당의 후설(喉舌)인 사회주의체제의 언론으로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1. 全滿 한글紙들을 <東北朝鮮人民報>로 統合

이와 같은 이유는 <동북조선인민보> 창간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 신문은 당의 후설이며 인민의 후설이다...이 신문의 주요 대상은 당정간부, 지식인 그리고 동북지구 대다수의 조선족인민 특히는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조선족인민들이다.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서로 결부한 모택동 사상을 선전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특히는 당의 민족정책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하며 사회투쟁과 생산투쟁을 보도하며 그들의 투지를 고무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이 신문의 주요 임무이다"라고 그 창간사에서 천명하였다.

1) <東北朝鮮人民報>의 發刊機關과 組織構造

이러한 임무를 띠고 창간된 <동북조선인민보>는 중공중앙동북국과 중공동북행정위원회의 지도, 감독 아래 중공연변지방위원회에서 발간했으나, 이 신문은 당시 중국내의 유일한 한글신문으로서 연변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 즉 만주 전역의 우리 동포들을 독자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 제호도 <동북조선인민보>라고 하였다.

<동북조선인민보>도 그 이전의 <연변일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장책임제로 운영되었는데, 초대 사장은 <민주일보> 부사장이었던 이욱성(李旭成)이었으며, 주필은 김동구(金東久), 부주필은 백남표(白南杓)였다. 그러나 1952년 4월 사장 겸 주필에 배재화(裵在華)가 임명되었다가 한달

뒤인 5월에 다시 사장은 이희일(李羲一)로, 주필은 정용수(鄭龍水)로 바뀌었다.[32] 그 후 1954년 <동북조선인민보>는 종래의 사장책임제(社長責任制)를 주필책임제(主筆責任制)로 고치면서 정용수가 주필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장이나 주필은 신문제작에 관한 실무만 맡고, 신문사의 중요 사항은 모두 중공중앙동북국과 중공동북행정위원회 및 연변지위와 그 지부인 중공동북조선인민보총지부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들 중 중공동북조선인민보총지부는 1951년 9월 설립되었다. 즉 그 이전에는 신문사내에 독립적 당지부를 따로 두지 않고, 동북조선인민보사, 연변출판사, 연변가무단(延邊歌舞團) 등 세 개 단위를 한데 묶어 연합당지부를 두어 <동북조선인민보>의 운영과 편집방침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지도, 감독토록 하였다가 1951년 9월 신문사내의 독립된 당지부로서 중공동북조선인민보총지부를 결성하였다.

<동북조선인민보>는 그때까지 중국에서 발간되었던 모든 한글신문들 중에서 사원(社員)이 가장 많았고, 조직기구도 가장 완비되었으며, 인쇄설비도 가장 잘 갖춘 신문이었는데, 이는 3개 신문사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었다.사원은 모두 178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 편집과 취재 부서의 사원은 84명이었으며, 행정사무인원이 34명, 인쇄공이 60명이었다.

이 신문사는 1951년 편집, 취재부서의 편제를 그 당시 중공중앙동북국에서 발간하던 중국어 기관지 <동북일보>(東北日報)의 그것을 따라 농촌조, 도시공업조, 재경조, 통련조, 선전조, 교정조, 전무조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1953년 다시 농촌조, 공업조, 시사조, 사회복지조, 정법조, 문예조, 당생활조, 기자조, 교정조, 전무조, 독자래신조(讀者來信組), 자료실로 나누었다가 1954년 9월 9일 국내소식조, 검사조, 선전조, 문교조를 신설하는 한편, 문예조는 철폐했으며 독자래신조는 '로동자래신조'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동북조선인민보>는 만주지역 전체의 우리 동포들을 독자대상으로 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남만과 북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32) 이는 吳泰鎬의 증언에 의한 것이나, 『연변일보력사지』(한글판), p. 3에는 1951년 12월에 사장이 배재화로 바뀌어 1년동안 사장직에 있다가 1955년 1월 사장이 이희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정규률(p. 515)에 의하면, 초대 사장은 <연변일보> 사장 겸 연변지위 선전부장이었던 崔采가 다시 겸임했다고 함.

들의 정황에 관한 보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만과 북만에 특파원을 각각 1명씩 주재시켰으며, 또한 본사 기자들이 남북만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각종 뉴스를 취재하였다.

2) <東北朝鮮人民報>의 通信員制度와 그 運營

이밖에 <동북조선인민보>는 만주 각처에 모두 1천여명의 통신원(通信員)들을 두고, 이들로부터 기사들 투고원고를 받아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통신원제도는 사회주의 언론의 중요 특성의 하나이자 공산당의 주요 방침으로서, '공산당의 신문은 곧 대중의 신문'이므로 전당(全黨)을 신문제작에 참여시킨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동북조선인민보>에서도 각급 당조직과 각지에 통신원들을 두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통신원제도의 조직을 위하여 <동북조선인민보>는 창간 한달 뒤인 1949년 5월 1자 지면에 중공연변지위의 '<동북조선인민보>에 관한 결정 및 통신보도망에 관한 통지'를 게재하여 통신원들을 모집하였으며, 1950년 4월 1일자 창간 1주년 기념호에서는 "통신보도망을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글을 싣기도 하였다. 한편 통신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동북조선인민보>에서는 매달 <로농통신>(1951. 3. 1 <통신사업>으로 개제)이라는 간행물을 발간, 통신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남만과 북만의 순회기자들로 하여금 통신원들의 조직망과 양성 사업도 지도케 하였다.

그리하여 1951년 3월 15일에 이르러서는 통신원들이 모두 1천7명에 달했으며 이들로부터 매달 1천여통의 투고(投稿) 기사들이 신문사로 들어왔는데, 만약 이들 투고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해당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해 주도록 하였다.

3) <東北朝鮮人民報>의 編輯方針과 주요 內容

<동북조선인민보>는 창간 초기에는 주 6회 매호 4절지 2면씩 발간하다가 1954년부터는 2절지로 4면씩 발간했는데, 1면은 중요 소식면, 2면은 공업과 농업 소식면, 3면은 문화교육 소식과 부간면(副刊面), 4면은 국제, 국내 소식과 광고면이었다. 보도기사들의 비율은 지방원고 60%에 신화사(新華社) 통신원고 40%를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편집의 기본방침은 그 이전의 <연변일보>와 마찬가지로서 신문의 대중성, 민족성, 지방성을 구현하거나 그에 부합되는 기사들만 게재하였으며, 그 창간사에서도 천명하였듯이 특히 우리 동포들에게 맑스-레닌주의와 이를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결부시킨 모택동 사상 및 중국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그 중에서도 특히 중공의 소수민족정책)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생산투쟁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들에 역점을 두었다. 생산투쟁을 고취하기 위한 기사는 주로 농업합작화운동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동북조선인민보>는 특히 이에 관한 보도들을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그런가 하면, 1950년 한반도에서 6.25 동란이 발발하자 이에 관한 보도도 크게 다루면서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을 부르짖기도 하였다.

<동북조선인민보>는 특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글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1949년 9월 14일부터 한자(漢字)를 섞어 쓰되 한자 옆에 한글로 토[音]를 달아주다가 1952년 4월 24일부터 다시 한글만 사용하였다. 발행부수는 매호 3만부선을 오르내렸으며, 배포는 만주지역 각처에 30여개소의 판매지국을 설치, 이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범위는 연변과 남북만은 물론 내몽고까지 포함되었다.

4) <東北朝鮮人民報>의 廢刊과 그간의 役割

위와 같은 본지(本紙) 이외에 <동북조선인민보>는 기층(基層) 간부와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1949년 11월 7일부터 '노농판'을 따로 발간하기도 했는데, 이 '노농판'은 타블로이드판으로 주 6회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모두 6백78호를 내고 1952년 4월 20일 폐간하였다.

또한 <동북조선인민보>사에서는 <농민수책>(農村手冊), <선전원수책>(宣傳員手冊>, <문화>(文化), <소년아동> 등의 잡지도 발간하였다. <농민수책>은 농촌의 농업합작화와 농업생산에 관한 중국공산당과 그 정부의 방침, 정책 등을 해설, 선전하기 위한 월간지였고, <선전원수책>은 주로 도시와 농촌에서 활약하는 공산당 선전원들에게 '조선전쟁'(6.25 동란)의 정세와 기타 국내외의 시사(時事)를 알려주기 위한 월간지였으며, <문화>는 문학예술면에 관한 일종의 문예지였다.

이처럼 <동북조선인민보>는 그 본지 이외에 각종 잡지들도 발간하면서 중국공산당의 후설(喉舌)로서 만주 전역의 우리 동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은 이 신문이 당시 만주에서는 물론, 중국내에서도 유일한 한글신문이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조선인민보>도 1954년말까지 5년 동안 모두 1천5백83호를 내고 1955년 1월 1일 <연변일보>로 개편, 개제됨으로써 <동북조선인민보>라는 제호의 한글신문이 사라지게 되었다.

2. <東北朝鮮人民報>를 <延邊日報>로 再改造

이렇게 하여 <동북조선인민보> 대신, 1955년 1월 1일 <연변일보>라는 제호의 한글신문이 연변에서 6년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 신문은 그 후 커다란 변모 없이 아직까지 발간되고 있는데, 이는 곧 1955년부터 중국의 우리 한민족 신문은 사회주의 체제 언론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그 이전의 <동북조선인민보>를 왜, 어떻게 <연변일보>로 개조, 개제하였는가?

1) <延邊日報>로 改題, 地方黨報로 완전 改造

중국공산당에서 <동북조선인민보>를 개조하여 그 제호를 다시 <연변일보>로 개제하게 된 것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5년 동안 각 지방에서 공산당의 조직과 그 정부기관들이 거의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 중공은 각 지구(地區)의 중앙국(中央局)들을 철폐하고 그 임무를 각 지방위원회에 넘겨주면서 이때 동북(만주) 지구의 동북(東北局)도 철폐하고 그에서 실제로 관할해 왔던 <동북조신인민보>도 연변지위에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동북조선인민보>가 명실공히 연변지위 기관지가 되자 그 제호를 1955년 1월 1일 <연변일보>로 다시 개제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때 중공은 그 이전인 1949년 3월 <연변일보>와 함께 <동북조선인민보>에 합병시켰던 북만 하얼빈의 <민주일보>와 남만의 <단결일보>는 복간시키지 않고, <연변일보>로 하여금 그 이전의 <동북조선인민보>와 마찬가지로 만주 전체 '조선족'을 위한 신문의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년 1월 8일 연변지위에서 발표한 '<연변일보>에 관한 결정'에서도 "<연변일보>는 중공연변지위의 기관지이며 조선문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며 령도의 의도를 관철하는 유력한 도구로서, 보도 중점은 연변지구이나 남북만지구를 고루 돌본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신문의 지도성과 평론사업을 강화하고 신문의 사상성을 높이며 민족정책의 선전을 강화하며 통신, 독보와 보급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1955년 2월 초 <연변일보> 편집부 명의로 낸 '남북만통신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사고(社告) 형식의 글에서도 <연변일보>는 그 이름을 고치기전의 <동북조선인민보>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 임무, 방침, 발행범위, 판면, 가격, 독자대상 등에 변함이 없으니 각 지구, 특히 남만과 북만의 통신원들은 계속 글을 써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동북조선인민보>의 주필이던 이회일과 부주필이던 정용수도 그대로 <연변일보>의 주필과 부주필직을 맡았는데, 부주필 정용수는 3월 20일자에서 "보도의 다양화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통하여 앞으로 <연변일보>는 보도의 취미성, 종합성,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그후 '공산당원들의 편지'라는 고정란을 설치하는 등 오히려 사상성만 더욱 강화하였다.

2) 延邊朝鮮族自治州委機關紙로 다시 變身

이러한 <연변일보>는 위에서 말했듯이 중공연변지위의 기관지였으나, 1955년 12월 다시 중공연변조선족차지주위원회의 기관지(당보)로 경착되어 오늘날까지 발간되고 있는데, 이는 연변지구가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되면서 종래의 중공연변지위가 1955년 12월 8일 중공연변조선족차지주인민위원회(이하 '연변주위'로 약칭)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공이 연변지구를 연변조선족차지주로 만든 것은, 중국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으로 소수민족구역의 자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중공은 1952년 8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연변에서도 1952년 8월 29일, 5개현 1개시의 대표자 3백명이 모여 제 1기 인민대표회의를 갖고 자치구 법률인 두개의 조례, 즉 '길림성연변조선민족자치구 각족각계급인민대표회'와 '길림성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정부조직조례'를 채택하고, 주덕회

(朱德懷)를 인민정부 주석으로, 그리고 32명의 정부위원과 법원장, 감찰원장을 선출하여 9월 3일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연변조선민족차치구 설립에 대한 비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무원에서는 본래 신청했던 성급(省級)의 '연변조선민족자치구'보다 그 격이 낮은 자치주(自治州)로, 그리고 주명(州名)도 '조선민족'에서 '조선족'으로 바꾸어 1954년 4월 비준해 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유일한 우리 민족의 자치주가 연변에 설치되었는데,[33]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1955년 12월 제 1기 인민대표대회를 소집, 주덕회를 주장(州長)으로 선출하고 17명의 위원을 선출, 주인민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설립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34] 그리고 그 자치지역내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를 자체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연변일보>도 그 주위(州委)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3) 延邊州委機關紙로 定着과 그 후의 <延邊日報>

위와 같이 1955년 12월 중공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위원회 기관지로 된 <연변일보>는 그 뒤 그대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야만 했는데, 1957년부터 중국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기로 들어가면서 모든 문제에 관한 보도를 사회주의적 개조에 중점을 맞추도록 강요당했으며, 1957년 반우파투쟁으로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 20여년간 이른바 '계급투쟁'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그간에 <연변일보>는 1957년 7월 1일 그 자매지로 <연변소년보>라는 소년신문도 창간했으며, 1958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어판(漢語版)도 별도

33) 이밖에 우리 민족의 자치구역으로는 1958년 9월 15일 설치된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있음.

34) 설립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個市(延吉市) 5個縣(延吉·和龍·汪淸·琿春·安圖)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85만4천명이었는데, 그중 우리 동포는 53만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1958년 10월 敦化縣이 편입되었으며, 1965년 5월에는 圖門鎭이, 1985년 3월에는 敦化縣이, 1988년 5월에는 延吉縣과 琿春縣이 市로 승격되어 현재는 5개시, 3개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는 2백8만명으로 26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중 우리 민족은 82만1천명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음(신근호, 1994, p. 22쪽).

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1966년 5월 16일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1967년 2월 19일 연변주둔 인민해방군 부대가 군사관제(軍事管制)를 실시하면서 <연변일보>를 <신화사전신>(新華社電訊)으로 고쳐 발간하다가 그 이듬해 8월 1일 다시 본래의 <연변일보>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그후에도 1976년 10월 문화혁명이 끝나기까지 7년 2개월 동안 <연변일보>는 '소보초대보, 대보초량효'(小報抄大報, 大報抄粱效)라는 4인방의 언론정책에 따라 신화사통신과 <인민일보>, <해방군보> 등의 기사들만 그대로 전재(轉載)하면서 "신문사 그 자체의 주견(主見)이 없이 위에서 불어대는 곡조에 따라 '비림비공'(批林批孔), '반격우경번안풍'(反擊右傾飜案風) 등의 똑같은 내용으로 판면을 꽉 채웠다"(『延邊新聞志·延邊日報新聞志』, p. 18). 그러다가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사망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시기로 접어들면서 <연변일보>는 점차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오늘날까지 발간되고 있다.

3. <延邊日報> 이외의 한글紙들의 實態

한편 이상과 같은 <연변일보> 이외에 그간에 중국에서는 또 두 개의 한글신문이 각각 북만과 남만에서 새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문이 나오게 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중공은 <동북조선인민보>를 <연변일보>로 개제하며 이를 그 이전의 <동북조선인민보>와 마찬가지로 만주지역 전체 우리 동포들을 위한 신문으로 발간토록 했으나 <연변일보>가 남만과 북만 우리 동포들에게 그들의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주지 못하게 되자 남만과 북만 우리 동포들은 그들 거주지역에서도 각각 한글신문이 나오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었다.

1) 北滿 할빈의 <黑龍江日報朝鮮文報>

우선 북만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이 지역 우리 동포들이 북만에서도 한글신문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또한 요구하자, 1956년 5월 7일 송강성(松江省, 후에 黑龍江省으로 되었음) 중공송강위(후에 흑룡강성위로 개칭)에서는 '조선문신문을 창간할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목단강지위(牧丹江地委)에 그 창간준비작업을 위임하였다. 이에 목단강지위에서는 8개월간의 준비사업을

거쳐 1957년 3월 1일, <목단강일보>(牧丹江日報)라는 한글신문을 창간하였는데 이는 4절지 4면의 격일간 신문이었으며, 주필은 박종희(朴鍾希, 창간 뒤인 1957년 6월 10일 임명)였고, 부주필은 김강(金剛)이었다.

그러나 2년 뒤인 1959년 5월 1일 <목단강일보>는 중국어판(漢語版)을 창간하면서 본래 한글로 간행하던 <목단강일보>를 '조선문판'으로 만드는 동시에 주필은 한족(漢族)으로서 당시 목단강지위 선전부장이었던 주상고(周祥庫)로 교체하였으며, 박종희와 김강은 부주필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재정난이 극심해지자 중공흑룡강성위 선전부에서는 1961년 1월 29일 <목단강일보>를 정간시켰다.

이에 우리 동포들은 수십만 '조선민족'이 살고있는 흑룡강성에 조선문 신문이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흑룡강성위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 중공중앙동북국과 중공중앙위원회에 '<목단강일보>를 성급(省級)의 한글신문으로 계속 발간할데 대한 보고'를 올리게 되었으며, 그 보고에 대하여 1961년 4월 30일 중공중앙에서 "<목단강일보>를 성급의 조선문신문으로 고칠데 대한 흑룡강성위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이렇게 하여 다시 북만의 흑룡강성 할빈에서 새로 4절지 4면의 주간 한글신문이 새로 나오게 되었던 바, 창간시의 제호는 <흑룡강신문>이었으나, 1963년 1월 1일 제호를 <흑룡강일보조선문보>로 고치는 동시에 주 2회간으로 바꿨다가 그 해 7월부터 주 3회간으로 발전시켰다.

2) 南滿 瀋陽의 <遼寧日報> '朝鮮文農村版'

위와 같이 북만에서 1957년 3월 1일, 한글신문인 <목단강일보>가 창간되자 남만의 심양에서도 1958년 8월 1일 <요녕농민보조선문판>(遼寧農民報朝鮮文版)을 창간하였는데, 이는 그 제호에서 보듯이 중문지(中文紙)인 <요녕농민보>의 한글판으로 <요녕농민보> 편집위원회 산하 '조선문판' 편집조에서 발간한 타블로이드판의 주 2회간 신문이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창간 2년 5개월만에 정간되었다.

이에 우리 동포들이 그 복간을 요구하자, 1965년 7월 24일 중공요녕성위선전부(中共遼寧省委宣傳部)와 요녕성민족사문위위회(遼寧省民族事務委員會) 및 요녕일보사(遼寧日報社)가 연명(聯名)으로 '조선문신문을 회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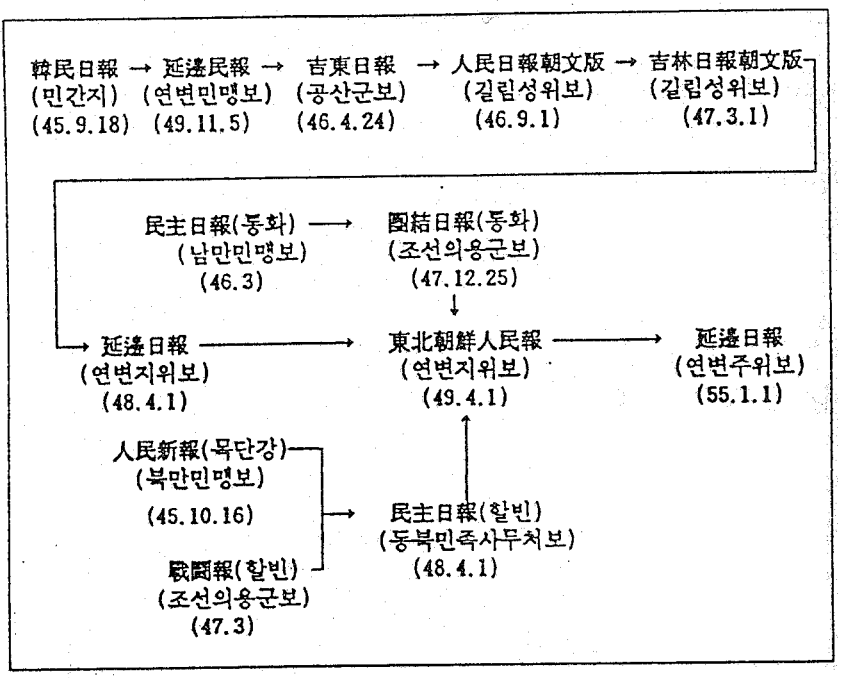
데 관한 신청보고서'를 중공요녕성(中共遼寧省委)와 성정부(省政府)에 올렸다. 그리하여 동년 9월 15일 복간에 관한 비준이 내리자, 3개월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1966년 1월 1일 다시 한글신문을 복간하게 되었는데, 그 제호는 <요녕일보> '조선문농촌판'으로서 이는 제호에서 보듯이 <요녕일보>에서 그 자매지로 발간한 한글판 신문이었다. 당시 책임자는 허경룡(許京龍)이었고 판형은 타블로이드판이었으며, 주 2회 모두 2천 내지 5천부를 발행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우리 동포들에게 정치, 시사와 경제, 문화생활 등을 알려 주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특히 농업과 교육분야에 대한 보도에 역점을 주었다.

비록 중문지의 조선문판이지만, 이상과 같이 북만과 남만에서도 <흑룡강일보조선문보>와 <요녕일보> 조선문농촌판이 발간됨으로써 만주, 아니 중국 전체에서 <연변일보>를 합쳐 모두 3개의 한글신문들이 발간되었는데, <흑룡강일보조선문보>와 <요녕일보> 조선문농촌판도 문화혁명시에는 온갖 수난을 겪다가 중국이 개혁·개방시기로 접어들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VII. 要約과 結論

이상에서 중국 연변지구의 우리 민족의 한글신문들을 중심으로 8.15 광복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국의 우리 한민족 언론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언론체제로 전환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공산당은 첫 단계로서 8.15 광복 후에 소생되었던 우리 민족의 민간지를 강제로 접수하여 우선 그 외곽단체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두번째 단계로는 그 외곽단체의 기관지들을 다시 공산군의 군보(軍報)로 전환시켰다가 중공산당중앙 직할의 성당위(省黨委)들을 설립하면서 세번째 단계로는 군보였던 한글신문들을 성당위 당보(黨報)의 '조선문판'(朝鮮文版)으로 만들었다.

[그림] 중국내 한글신문들의 변모와 통합과정



하지만 그 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가 가까워오자 중공은 그 지방당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결성하면서 네번째 단계로는 종전의 성급(省級) 당보의 '조선문판'이었던 한글신문들을 지방당위의 당보로 전환시켰던 바,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중공길림성위의 당보인 <길림일보> '조선문판'을 중공연변지방위원회의 기관지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다섯번째 단계로는 각 곳의 한글신문들을 통합하여 광역의 지방당보(例: <동북조선인민보>, <연변일보>)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의 지방당보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우리 동포들이 그 지역의 한글신문들을 발간해 줄 것을 요청하자, 광역의 한글지방당보를 그대로 두는 동시에 다시 각 지방당위의 중국어 당보에 조선문판들을 병치하여 발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55년 경까지 일단 우리 한글신문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언론, 즉 공산당의 지방당보나 그 조선문판으로의 전환을 끝맺은 다음, 이러한 체제를 문

화대혁명의 끝날때까지 계속 유지해 해 왔다.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이 우리 민족의 한글신문들도 모두 중국공산당의 기관지로 전환시킨 것은, 공산당은 인민의 대변자이므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의 언론매체도 무조건적으로 당의 정책과 방침에 복종하면서 당의 후설(喉舌)로서 당의 노선, 정책을 선전해야 한다는 맑스-레닌의 언론사상에 모택동의 사상을 가미한 중국공산당의 언론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우리 교포지들도 중국공산당의 후설기관으로 전환되어 중국공산당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 아래 발간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당의 방침과 정책만을 선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교포지들도 그 소속 국가의 정치체제와 언론정책에 따라 그 존재양식과 기능,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실례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우리 교포지들은 모택동이 사망하고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 중국이 개방, 개혁시기로 넘어가면서 그 기능이나 내용상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또한 소속 국가의 정치체제와 언론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교포지들도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구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록 중국의 우리 교포지들도 중국공산당의 후설기관으로서 당의 정책과 방침 등만 주로 선전해 왔으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 배달민족의 정신과 문화, 풍습 등의 유지와 계승, 발전 및 우리 동포들의 교육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는 점을 끝으로 부언해 두고자 하는데, 중국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중국내 여러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교육문화의 수준이 높은 것은 한글신문들의 영향도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姜命相(1979).『中共의 少數民族政策』. 서울: 隆盛出版社.

金東勛, 金昌浩(1990).『朝鮮族文化』. 長春: 吉林敎育出版社, 1990.

金澤 主編.『吉林朝鮮族』.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김필정(1992). 흑룡강성의 조선문간행물.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524-527.

東北人民政府事務處(1950).『各種統計表』. 中國: 東北人民政府事務處.

延邊朝鮮族自治州政府(1990).『延邊人口統計匯編』 1990年版. pp. 120-121.

리창역(1992).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143-146.

리창역, 요작기(1992). 연변인민민주대동맹.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102-107.

문일환(1991). 북경지역 한국인 이민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최 제1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세계속의 한국문화: 재외 한인의 생활과 문화』. 경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73-97.

白同活(1985). 延邊人民民主大同盟的 歷史作用. 政協延邊朝鮮族自治州委員會 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延邊文史資料』 제 4집(1985. 11), pp. 143-147.

백구령(1992). <단결보>.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 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531-532.

서명훈, 권녕하, 량재화(1992). 북만지구 조선인민주련맹.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 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133-142.

薛爾頓(1989).『中華人民共和國簡史』. 香港: 曙光圖書公司.

신근호(1994).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 6권: 창업』. 북경: 민족출판사, pp. 22-34.

沈陽市民委民族志編纂辦公室編(1989). 『沈陽朝鮮族志』.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延邊日報社編(1988). 『延邊新聞志 · 延邊日報新聞志』. 延吉: 延邊日報社.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편(1984).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이연(1992). 연변에서의 민주정권건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 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108-109.

정규률(1992). <한민일보>로부터 <동국조선인민보>까지.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제 5권: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pp. 512-515.

조성일(1991). 중국대지에 뿌리내린 배달민족의 전통문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회 세계한민족 학술회의 논문집 『世界속의 한국문화: 재외한인의 생활과 문화』. pp. 321-323.

조선족략사편찬조(1986). 『조선족략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朝鮮通信社編(1948). 『朝鮮年鑑』. 東京: 朝鮮通信社.

中國共産黨延邊·吉東·吉敦地委(1985). 『延邊專署重要文件匯編』 제 1집.

中國社會科學院新聞研究所編(1984). 『中國新聞年鑑』. 北京: 人民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新聞研究所編(1984). 中國革命報刊簡史: 東北解放區. 中國社會科學院新聞研究所編, 『中國新聞年鑑』(1983版). 北京: 人民出版社, pp. 643-648.

許煥隆(1988). 『中國現代新聞史簡編』. 許昌: 河南人民出版社.

玄圭煥(1967). 『韓國流移民史(上)』. 서울: 語文閣.

ABSTRACT

Transformation of Korean-Language Newspapers in the Communist China: 1945-1950

By Bae Keun Cha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language newspapers in the Communist China are interesting and useful for study. They are interesting because all of them are orga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le Korean-language press in other foreign capitalist countries are running by Koreans residing there as private or commercial venture. Examination of Korean-language press in China is useful because it provides us data for a good case study suitable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newspapers abroad and the mass media system of their host countries.

In this study, therefore, examined are the state of Korean- language newspapers and their transformation process into the Communist Chinese styled unique press system, based on both Maozedong's and Lenin-Mark's philosophy of press,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ommunist China.

A short while after the end of Chinese-Japanese War in 1945,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began to transform Korean- language newspapers in China into its press system along with other Chinese papers in its occupied area. First, CCP took over by force Korean-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as commercial or private venture, e.g., Hanminilbo(韓民日報), and replaced them by political organs of associations or unions affiliated with CCP. Second, CCP replaced them again by military newspapers, circulated in both military camps and public at beginning of the Liberation War between CCP and the Kuomintang armed forces. And then in 1948, with the approach of communist's victory in the Liberation War, finally, CCP merged the Korean-language military papers with Chinese organs of CCP local

committees by substituting them for the Chinese organs' Korean-language editions as CCP's propaganda tool.

As the results, thereafter, in China, no Korean-language newspapers have been published as private or commercial venture. All papers became political organs of CCP's local committees, of which role is solely to propagandize CCP's ideology and policy. This fact proves that the state of existence of Korean-language newspapers abroad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 to their host country's press system.